

할렐루야, 이 시대의 악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늘 살피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늘 겸비하여 주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1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3월 1일 (토) 제 200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도파민 미디어는 디지털 라스베가스이다

##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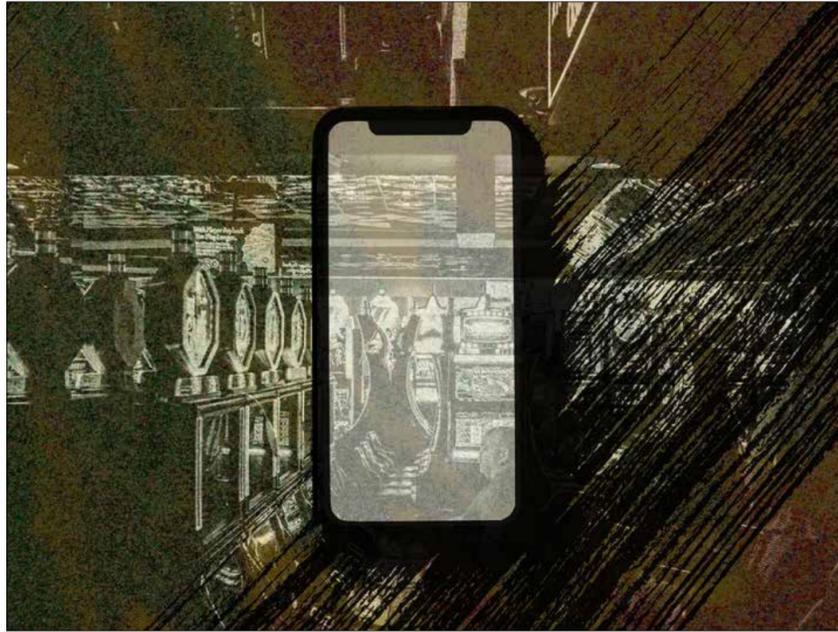
닐 포스트먼은 미국 역사의 모든 시대가 도시로 표현된다고 말했다. 보스턴은 혁명 열정의 이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시카고는 산업 역동성의 화신이었으며, 뉴욕은 인종의 용광로 미국의 인격화,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는 과도한 오락의 화신이 되었다.

라스베가스에 대한 포스트먼의 진단은 옳았다. 이 도시는 사치스럽고 유희적인 오락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도박으로 더 유명하다. 따라서 이 도시는 미국 역사의 현재 단계인 도파민 미디어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형태이다. 도파민 미디어가 무엇인가? 쉽지는 않으나 도파민 방출을 위해 끊임없이 스크롤 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콘텐츠이다.

### 도파민 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독성이 물질 때문이라고, 특히 도파민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행동 자체가 매우 강한 중독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뇌에서 방출하는 도파민 때문이다.

2013년에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의해서 병적 도박이 중독성 장애로 재분류되었다. 도박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은 도파민 미디어가 작용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똑같다. 안나 렘브케(Anna Lembke)의 설명이다. "연구에 따르면



도박으로 인한 도파민 방출은 최종 보상 자체만큼이나 보상 제공의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도박에 대한 동기는 금전적 이득보다는 보상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이유가 있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가 가장 많은 도파민을 방출할 때는 돈을 뺏을 때가 아니라 딸지 잃을지 50대 50으로 모를 때라고 한다. 즉 최고 수준의 도파민 상승은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도파민과 관련하여 보상에 대한 기대는 보상 자체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슬롯머신이 중독성이 있는 건,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큰 승리가 항상 바로 코앞

에 있다는 생각에, 레버를 한 번만 더 당기면 된다는 생각에, 뇌에서는 기대 도파민이 방출된다.

바로 이 통찰력이 도파민 미디어 작동 방식의 핵심이기에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큰 기술회사에서 일하는 행동 심리학자는 디지털 슬롯머신이라고 불리는 간헐적 가변 보상을 사용해서 플랫폼과 앱(소셜 미디어, 뉴스 미디어, 비디오 미디어)을 설계한다. 실제 슬롯머신 연구서 Addiction by Design의 저자인 나타샤 슈틸(Natasha Schüll)의 설명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및 기타 회사는 사용자를 사이트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도박 산업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 할 때마다 사용자는 디지털 레버를 당기면서 간헐적 가변 보상을 받는다. 때로는 '좋아요'를 두 번 받고, 때로는 이백 번 받는다. 스크롤하다 보면 영타리 영상도 있지만, 어떤 건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틱톡에서 개척되어 이제는 메타와 유튜브에서 더 발전한 쇼츠 영상의 가장 큰 매력은 간헐적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레버를 당긴다. 뇌는 보상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한다. 재미없는 영상에 잠깐 좌절하거나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보도록 만드는 충동이다.

<10면으로 계속>



# 실 한 가닥에 매달린 위태로운 세상에서

## 가장 어두운 순간에조차도 악에서 선을 이끌어 내시는 분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무서운 책의 마지막 장을 조금 전 덮었다. 서스펜스나 호러 소설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 사실이 될지 모른다.

애니 제이콥슨의 24분(Nuclear War)은 단지 추측에 근거한 글이 아니어서 무섭다. 최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와 기밀 해제된 문서를 바탕으로, 저자는 미국에 핵 공격이 가해질 경우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닥칠 일을 끔찍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단지 사망자 숫자 때문에 핵이 무서운 게 아니다. 진짜 공포는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다. 우리가 아는 문명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 세계의 시스

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우리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긴다. 통신 네트워크, 금융 시장, 공급망, 현대 생활의 기본 인프라 등등. 하지만 제이콥슨은 이 모든 게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한 번의 폭발은 단지 하나의 고립된 사건으로 남지 않는다. 역지력이라는 말 속에 내재된 논리로 인해서, 자기 방어를 위한 충동과 신속한 보복의 필요성은 핵전쟁 발발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폭발로 그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수많은 핵미사일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미국 영토에서 첫 번째 폭발이 채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반격하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7면

선교한국  
손상용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엔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 제12회 미주청소년 정체성찾기

### 효글짓기&그림 공모전

"Hyo(Filial Piety)" Writing&Art Contest

**접수기간 2025.3.10(월) ~ 3.31(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자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주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n your family?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n your church?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n your school?

**공모전 개요**  
공모대상 Kindergarten ~ 12th Grade

**접수방법**  
글짓기, 그림 접수하실 때 꼭 참가 학생 정보 기입해주세요. (학생이름, 학년)

참가부분	접수방법
글짓기	온라인,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그림	우편, 방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이메일 접수 불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5줄 이내로 적어주세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접수	이메일
QR코드 사용 (자세한 내용은 효사랑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7342 Orangethorpe Ave, Ste B 113, Buena Park, CA 90621	hyosarangus@gmail.com

**제출양식**  
글짓기: 3page (Letter Size, 12pt)  
한글 또는 영어 (Korean or English)  
그림: 14"\*17" (Crayon, Watercolor, Acrylic Paint etc)

**시상내역**

훈격	상금	시상인원
대상	\$500	2명(글짓기, 그림 각 부분 1명)
최우수상	\$300	4명(글짓기, 그림 각 부분 2명)
우수상	\$200	6명(글짓기, 그림 각 부분 3명)
헤이븐장학상		2명(11학년 학생에 한해서 수상)
심사위원상		4명(글짓기, 그림 각 부분 2명)
최고상		26명(글짓기, 그림 각 학년 1명)

**참가비(\$20 / Per Work)**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Venmo. Hyosarangus Mission Zelle. 5628335520 (Hyosarangus Mission) 체크, 벤모로 보내실 때 학생 이름, 학년 꼭 적어주세요!

**시상식**  
날짜 및 장소: 2025.4.26 (토) Pm. 2:00  
로템장로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92804

**문의전화**  
효사랑선교회  
714-670-8004 / 714-833-2710

접수바로가기

주최 | 효사랑선교회

후원 | OC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openbank, HAVEN, YOUNG KIM, DR. STEVEN CHOI, JOYCE ANN MAYOR, Sharon Quirk-Silva

시론

잊혀진 사람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일본의 유명 웹툰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가 쓴 <원피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만화다. 그의 작품에는 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 가장 손꼽히는 장면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한 닥터 히루루키가 자문자답하는 말이다. "사람은 언제 죽는가? 종알이 심장을 뚫었을 때? 천만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천만에. 맹독 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천만에.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정말 죽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으니 진짜 죽은 것은 아니라라는 뜻이 된다. 또한, 이 말을 뒤집으면, 아무리 살아 있는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졌거나 희미해졌다면 그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브라질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백년의 고독>에도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 진정으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무서운 일은 잊혀지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시인은 잊혀진다는 것은 서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찌했는가? 인간은 원래 망각의 동물인데.

인간은 아랍어로는 <나스>라 한다. 그 어원이 <나시아>라는 동사인데 이는 잊어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라 할 수도 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은 20분만 지나면 기억의 40%를 잊고, 1시간 후면 50%, 1일 후면 70%, 6일 후면 80%,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9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매일 하는 운동 기량을 쟁기는 데에도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을 빠뜨리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이제 드디어 감옥 생활을 면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창40:23). 그래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 사건 이후, 만 2년이 지난 후 바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뿐이다. 하지만 요셉의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이 13년 동안 이어진 것과 그 마지막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잊혀진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요셉이라 해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분명하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꿈을 인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오히려 총리가 될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사 49:15).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겠는가?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결코 사랑하시는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여 깊은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인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인내하지 말라. 쓰디쓴 마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 오히려 명랑하게 버티라. 명랑하게 버티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힘들지만 주눅 들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들고 웃을 땀 표정을 짓는 순간 승리는 이미 내 것이 된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어찌 아니 기쁜가!

minkyungjob@gmail.com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래리 샌저의 기독교로의 여정



2001년 위키피디아를 시작한 래리 샌저가 지난주에 회의주의에서 기독교로의 여정을 설명하는 긴 에세이를 발표했다. 샌저는 분석 철학을 전공한 열렬한 회의론자였다. 분석 철학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가 지배하는 분야이다. 그는 35년을 무신론자로 보냈지만, 자신을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고, 단지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회의주의자를 대상으로 자기 이야기를 썼다.

샌저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다음 몇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랐다.

- 1. 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 그건 불신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샌저는 어린 시절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녔지만, 10대 중반에 이르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 그가 신앙에서 벗어난 건 다음에 소개하는 어느 목사와의 대화 때문이었다.

10대 후반 어느 시점에 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10대 아이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단지 반항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당시 내게는 정말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목사님은 명확하고 확신 있는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 질문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고, 마치 나 때문에 자신이 무슨 위협이라도 받는다는 인상마저 풍겼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이었다. 내가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확인한 적대적인 무관심은 나의 불신을 확증했다.

돌이켜보면, 질문을 많이 하지 말라고 들은 게 내 믿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끔찍한 일이다. 내가 그랬듯,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호기심 없고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독단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테니까 말이다. 결국 믿음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게 내 생각이었다.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목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기독교에 관한 질문이나 반대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정도의 변증 지식을 갖추겠다는 강한 도전과 함께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또한 질문하는 사람들을 성가심이나 경멸이 아니라 연민과 목자의 보살핌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개의 논증이 합쳐져 힘을 발휘할 때 단지 하나의 논증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로 샌저가 꼽는 건 설계 논증의 한 버전인 미세 조정 논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논증을 포함해서 다른 전통적인 논증이 논리적으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전적 논증을 공부하고 가르친 경험은 내게 그 주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내게 그런 논증의 논리에 구멍을 뚫는 일, 심지어 최종 결론의 보류를 정당화할 정도로까지 큰 구멍을 뚫는 것도 사소한 일로 보였다. 내가 그런 논증에 대해서 가진 가장 큰 불평은 이것이다. 그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신의 존재, 특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진전을 이루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진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으로 인한 부분적인 진전은 샌저가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누적된 논증의 힘이 그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sun@yahoo.com

Youth Pastor 청빙공고
뉴욕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뉴욕선교교회에서 영어 설교 가능한 파트타임 전도사나 부목사를 모집합니다.
1. 이중언어 사역 (영어설교 가능하신 분)
2. 파트타임 사역
3. M.Div.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4.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신앙과 소명 간증문
3) Youth 사역에 대한 비전
서류제출: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사례비 및 기타 청빙 관련 문의: 718-451-6348
The New York Mission Church located in College Point, Queens, New York is seeking a pastor who can preach in English.
1. Bilingual ministry (preach in English)
2. Part-time ministry
3. M.Div.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4. Documents to be submitted:
1) Resume and self-introduction
2) Testimony of faith and calling
3) Vision for Youth Ministry
Submit documents: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Inquiries regarding honoraria and other invitations: 718-451-6348

담임 목사 청빙공고
휴스턴 한인장로교회는 고 김성만 목사가 1977년도에 휴스턴 지역(Texas)에 개척한 교회로, PCA 한인남부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현재 48년째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6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PCA 교단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으신 분
2. PCA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대학이나 일반 대학교(B.A) 졸업 이후에 신학대학원(M.Div) 이상을 공부하신 분
3.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영주권자나 시민권자)
4. 목사 안수 후 Full Time으로 미국에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 목사 또는 부 목사)
5.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만 45세--55세 까지 해당되시는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2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가족 사진 첨부) 2부
3. 목사 안수 증명서 2부
4. 대학(B.A) 졸업증명서 2부, 신학교(M.Div) 졸업 증명서 2부
5. 목회자 2분으로부터 추천서 2부(추천서는 직접 이메일(lee1954us@yahoo.com)로 보내 주실 것)
6. 최근 6개월 내에 설교하신 동영상 2회분(USB로 제출)
7. 나의 신앙 고백서 2부
8. 나의 목회 철학과 이민 목회 계획서 2부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프린트하여 Priority mail로 준비하여 교회로 보내 주시고 설교 동영상만 USB로 담아서 함께 제출하실 것
2. 모든 서류는 오직 목사 청빙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결과에 개별 통지해 드리며(전화 번호 텍스트로), 전화로 문의하시는 일은 사절합니다.
4. 서류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제출처는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귀하,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9002 Ruland Rd. Houston, TX, 77055> 입니다.
5. 청빙위원회로부터 선발이 되시면 개별 연락하여 5월과 6월 중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7월 13일 주일 안에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것임.
6. 제6대 담임 목사님 결정이 되시면 7월 중순 경부터 8월 사이에 휴스턴으로 이사오시면 될 것입니다.
PCA 한인남부노회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www.kpchouston.com | 9002 Ruland Rd, Houston, TX, 77055

### 실 한 가닥에 매달린 위태로운 세상에서

(1면에서 계속)

편중, 의사소통 오류,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치명적인 연쇄작용이 작동을 시작한다.

차마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없다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1914년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몇 번의 트리거, 외교적 실수, 세계 지도자들을 전쟁 속으로 밀어 넣은 도미노 현상,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유럽의 젊은 세대 전체가 파괴되었다. 꼭 죽고 싶어 환장한 눈이 있어야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다. 핵 버튼에 손가락을 얹은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단 몇 시간에 세계가 파괴된다

24면에서 내가 주목한 건 재앙의 속도였다. 이 책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이 핵전쟁 전체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10배는 더 길다. 일반적인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 만에 세상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은 인류가 여태 경험한 적이 없는 속도이다. 다른 전쟁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단 몇 분 안에 끝날 것이다. 심의할 시간도, 전략적 계획을 세울 시간도, 긴장 완화를 위한 마지막 순간의 노력도 없을 것이다. 일단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 단 한 시간 안에 여러 대륙의 주요 도시는 타오르는 분화구로 전락하고, 방사능이 온 시골을 휩쓸 것이다. 배수비오산과 폼페이를 생각하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온 세상이 폼페이가 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통신이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세상은 사라진다.

핵 교환은 단지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인류 멸종 사건이다. 1970년대 민방위 훈련으로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던 건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수백만의 민간인, 가족, 어린이, 전체 인구 순식간에 소각될 것이다.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불운한 사람들이다. 이어지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또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세상, 방사능과 폐허가 남긴 황량한 종말을 만날 것이다. 상황은 아마도 코맥 매카시의 소설 더 로드(The Road)를 영화화한 동명의 공포 영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상실의 측면에서 보는 사랑

나는 이 책이 무섭다고 말했고, 사실 그렇다. 그토록 무섭고 또 그럴듯한 시나리오 때문에 느끼는 저변에 흐르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또 다른 감정이 떠오른다. 바로 감사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할수록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체스터턴의 말이 떠오른다. “무엇이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작은 규모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다른 누군가의 아이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창자구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 그리고 이어서 솟구치는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꼭 껴안고 싶다는 본능 말이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 인생은 결코 덜 소중한 게 아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진다.

체스터턴은 Saint Francis of Assisi(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에서 사랑하는 마을이 거꾸로 뒤집히는 상황에 대한 아



우구스티누스의 시각을 묘사한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성벽의 큰 석조나 망루의 거대한 기초, 그리고 높은 성채가 동네를 더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모두를 뒤집는 순간 같은 무게로 인해 마을은 더 무력하고 더 위험해진다.” 이상한 역설이다. 재앙에 직면한 세상을 한번 보자.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던 모든 시스템과 구조가 순식간에 엄청난 취약성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렇다고 달랑 실 한 가닥에 매달린 세상을 보는 게 반드시 절망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다. 사랑으로 이어진다. 기쁨으로, 봉사로도 이어진다.

실제 매달린 세상

이런 느낌의 사랑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즉 의존성과 연결되어 있다. 체스터턴은 어떻게 성 프란시스코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본 후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의 눈에 비친 가파른 지붕 위의 기와, 성벽에 앉은 새는 여전히 사랑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영원한 위험과 의존이라는 새롭고 신성한 빛이 깃들여져 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른 눈으로 보고 사랑한다. 움직일 수 없는 강한 도시를 보며 느끼던 자랑스러움 대신에 그는 이제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능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대한 크리스탈이 산산이 부서져 사랑에 뿌려지듯 온 우주의 별들이 우리 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 베드로가 머리를 아래로 향할 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았던 세상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것이 핵전쟁을 생각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다. 두려움이 전부 아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대량 멸종의 위협은 확대된 개인의 취약성이다. 누구라도 사고나 뇌졸중으로 죽을 수 있다. 항상 말이다. 한 순간 살아 있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죽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모든 삶은 언제나 실에 매달려 있고, 그 실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다. 역사는 공포로 가득하다. 인간의 사악함과 고통은 때때로 통제되지 않은 채 흘러갔다. 수세기 전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전쟁, 아우슈비츠의 공포,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이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역

사는 알려지지 않은 구원으로도 가득하다. 일어나지 않은 전쟁, 일어나지 않은 재난, 간신히 피했던 잔혹 행위가 그렇다. 이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조에 짜여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 재앙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 모든 것을 지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지금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악을 억제하고 계신다. 그 누구도 매일 숨을 쉬 자격이 없음에도 그는 우리가 계속 숨을 쉬도록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셨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비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이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제이콥슨의 책이 경고와 억제책의 역할을 할지 말이다. 지도자들이 어둠 속 터널로 빠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섭리로 쓰일 또 하나의 도구가 될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은 우리가 세상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감을 키우며, 체스터턴이 말했듯이 파괴되는 세상에서도 영광에 대한 비전을 보도록 돕는다.

하나님 자비의 머리카락에 온 세상이 매달려 있음을 본 사람은 진실을 본 것이다. 차가운 진실이라고 불려도 틀린 말이 아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도시를 본 사람이야말로 도시를 제대로 본 것이다.

by Trevin Wax, TGC

### 목회단상

## 내게 주신 특권을 누리시다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관련된 기술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개울가에 앉아서 손으로 했는데, 최초의 로봇인 세탁기가 손으로 하던 빨래를 대신해 주어 시간과 노동력의 90% 이상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처럼 직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모든 가사의 일 뿐만 아니라 공장과 농장의 일까지 하는 시대가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크루즈 컨트롤로 일정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운전자가 가속기를 밟지 않아도, 설정해 놓은 속도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려면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차들은 크루즈컨트롤을 설정하면 주변 차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속도를 맞추어서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율주행의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야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조건 하에서 운전자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한 숨을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완전 자율주행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어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요.” “왜요? 출퇴근할 때 자율주행으로 다니시면 피곤이 덜 할텐데요?” “아직까지 무서워서요.” 솔직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문득 영국 웨일즈의 한 여성에 대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산골짜기에서 전기가 없이 램프를 켜고 있던 여성이 거금을 들여서 집에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공사를 하여 집에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5개월이 지나서 전력 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기 공사를 한 이 여성의 집의 전력 사용량을 점검하던 중 깜짝 놀랍니다.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전력 회사는 혹시 그 여성의 집에 전선이나 전기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여 점검하기로 하고, 검사원을 파견합니다. 검사원이 여성의 집에 가서 계량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방금 계량기를 확인해 보았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에는 전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저는 매일 밤 형광등을 켜서 램프에 불을 붙인 후 다시 형광등을 끕니다.” 이 여성은 전기를 절약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가진 수없이 많은 특권들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가고, 내게 업습은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특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ynosupbois@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313-4498, www.lafca.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가주든단교회</b>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할 2: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 472-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부흥예배: 오후 7:3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정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714)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일일예배: 오후 11:15(수-금),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세계선교교회</b>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대학부 금요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a.com, worldmissionchc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b>실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p-Fe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부)	<b>열매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8, Cell: (213) 5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지역원</b>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본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수요일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안락교회: 오후 11:15(수-금), 365일 24시간 온 Tel: (714) 446-6200, www.graecmc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할 4: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cc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주요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본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평양교회</b>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나눔교과: 오후 11:00 TEE-용모로살(주일): 오전 9:30 화요일 3:30기도회: 매일 새벽 2:00-3: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읽는(금): 오후 7:30 수요일예배: (월-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y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اید장로교회)

###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는 길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자신들과 마을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므로 신의 노를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서서 사사기 6장 31절에 이런 말을 하였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

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사람에게 의하여 그렇게 무참히 찌혀 불사름을 당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그냥 놔두어도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니 기드온을 인위적으로 처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날에 기드온의 이

름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의미는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 결과는 결국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고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가짜 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짜 신만 무슨 일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성경으로 만들어진 형식 과정을 보면서 깊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책은 한 머리 좋은 유대인이 저술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으로서 일점일획도 틀린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믿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 전 성경이 지금의 책으로 만들어진 과정

을 책으로 읽으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졌는데 그 책마다 저자가 다르고 시대도 다른 때에 써졌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정경으로 삼은 것을 기독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27권으로 결정되었다. 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어느 책이 성경이 되는가를 결정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거냐고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 의심하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처럼 일어나 헛소리를 하였다. 성경을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그동안의 나의 믿음은 무엇이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다. 학교에서는 신약 성경이 성경이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였다. 처음엔

사도성을 말했고, 오래된 문서로 근거를 삼아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초대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던 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말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어긋난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는 사도가 쓰지 않은 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사도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 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또한 오래된 문서가 다 성경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신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문서도 있었지만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자주 쓰던 책도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성경으로 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에 성령이 개입해서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금 억지처럼 들리지 않는가? 마치 인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엉뚱하게 이 의문을

다른 데서 풀게 되었다. 그것은 신약개론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학자들은 다이네믹 인프리티 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어떤 나라 말로 번역하여도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은 도미니카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그곳 분들은 스페니쉬 성경으로 읽고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다.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인생이 바뀌는 분들을 본다. 나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아 있는 신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뉴욕영안교회)



풍산개와 셰퍼드가 싸우는 동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셰퍼드는 풍산개보다 덩치가 1.5배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셰퍼드가 공격을 계속하면, 풍산개는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잠시 셰퍼드가 집중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갑자기 한 번에 목을 물고 늘어져서 이겼습니다. 덩치 큰 셰퍼드가 작은 풍산개를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길들여짐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셰퍼드는 지키는 개, 혹은 수색견으로 훈련되고 사용되어 집니다. 그러나 풍산개는 사냥견입니다. 지키고 수색하는 셰퍼드는 야성을 잃었고, 싸움을 위한 사냥견인 풍산개는 야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보호막이 쳐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헬룡은 여전히 좋습니다. 덩치도 더 커졌습니다. 울타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권세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움에

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일도 바쁘면 빠지고, 십일조도

지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야성을 본받아, 우리 신앙의 야성을 키우고자 합니다.

1.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3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신령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라서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노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런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현금도 정직한 현금을 드려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거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둬야 하고, 또 하나는 돈주머니가 거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립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히스기야의 야성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2.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5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과거에도 미래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6절)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 약합니다. 넘어지고 찢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 신앙의 야성을 키우라

열왕기하 18:3-8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타협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감성이 뛰어나지만, 야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 실패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의 사건 때이고, 다음은 노년에 인구 조사 한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다윗이, 두 사건을 두고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혹독한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안일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조지 바나가 지적한 것처럼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데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싸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성에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적당하게 드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볼까 고민하며, 조상 중 어떤 왕이 정치를 잘했는지를 알아보니, 다윗 왕이었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다윗 왕이 걸어간 길을 히스기야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성과 야성이 강한 다윗을 신앙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부수버리고 목상을 찍어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가는 길을 행통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야성을 가질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의

지하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보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성전이요, 마음이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을 마음 중심에 두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허물도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된 것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직하게 드러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드러나 마나 한 예배, 또 드러고도 화를 입은 예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정직할 때 신앙의 야성이 회복됩니다. (4절) 정직하게 살면 담대해집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시대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우상을 제거하는 엄청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력이 어디서 나오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담대해집니다. 강한 신앙의 야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면에 거짓되게 살면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풍산개와 같은 신앙의 야성이 죽어버리고, 힘없는 셰퍼트처럼 되어 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7절)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둘째,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였습니다. 행통이란 막힘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행통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야성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야성이 살아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앞날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야성을 키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wom10004@naver.com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이슬람 지역을 바꾸는 주역들

저희 부부는 지난달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여 선교부 지역 전략 모임을 가지면서 그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을 방문하기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니

휘황찬란한 불빛에 세계 모든 인종들을 대표하고 있는 뉴욕이나 시카고를 연상시키는 공황의 분위기가 너무나 밝고 활발해서 여기가 이슬람 국가인 것을 잠시 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잠시 경유하여 튀니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 둘러보니 역시 14년 전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할 때와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의 분포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여성들은 당연히 히잡만 아니라 부카르(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회장)까지 착용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남자들도 머리에 두건을 둘러었는데 이전 너무

나 많이 개방되어서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승객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수도인 튀니스에 도착하고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식당같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그곳 사회의 곳곳에는 아시아에서 온 일꾼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모습이 새로운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모두 섞여있는 다양성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이렇게 열어 주시면서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비행기로 사우디의 제다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처음 밟는 땅이라 어떤 곳일까 꽤 궁금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뇌리에 담아 미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항의 크기와 깨끗함과 또한 질서에 놀라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역시 돈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왕세자 압둘 살만의 경제 정책으로 친환경적인 그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선도하는데 거리에 전기차가 많은 것이 또 하나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저장된 석유를 파는 대신 친환경적인 "네옴 도시"를 세우고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과 맞물려서 도시 곳곳에 북미나 유럽 뻗칠 정도의 고층 건물과 현대와 이슬람 양식을 교묘하게 엮어서 세운 건물들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남성들은 여전히 전통 복장을 입고 여성들은 검은 천으로 온몸을 다 가리고 다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나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분포도가 온 도시를 다 덮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일꾼들은 사우디 본토인 아닌 아시아에서 혹은 북아프리카에서 옮겨온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들은 사우디가 자기의 분향처럼 자연스럽게 살고 있던 것입니다. 지난 로잔 4차 대회에서 오늘날의 현상을 "People On the Move"라고 정의했듯이 이제 그 현실이 무슬림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 사우디에서조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무슬림 선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이고 전통적인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할지라도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으로 이슬람교의 변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됩니다. 아니 변질이 세속적이 아닌 복음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각 선교단체와 교회들은 무슬림 사역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 하나님의 무슬림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gy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관세, 일대일로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 4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두 나라가 이민 단속에 협력하겠다고 밝히자 관세 부과를 3월 4일까지 한 달 유예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휴대받았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건 상호주의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한테 부과한다. 그러니 관세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강硬的 의지를 밝혔지만 멕시코에선 합의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모든 사안에 대해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합의를 마무리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 '러 전쟁 책임' 두고 갈라진 美-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결의안이 각각 제출돼 통과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러



시아의 전쟁 책임을 거론하지 않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이 채택됐고, 유엔총회에선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주도의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 15개 이사국 중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러시아의 침략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분쟁의 신속한 종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기권했다. 주유엔 프랑스대사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는 "프랑스는 피해자의 항복이 아니라 공정한 평화를 지지한다"며 "공격이 보상받고 정결의 법칙이 승리한다면 어디에도 평화와 안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찬성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표결 후 발언에서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주권국가를 상대로 한 침공

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결의안이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 처리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다. 이 표결에서 미국은 러시아·헝가리·이스라엘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는 "총회와 안보리 모두에서 미국이 영국·프랑스 등 가까운 동맹국들과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해 늘 단합된 입장을 보여온 국가 간에 공개적인 균열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오사카엑스포 4월 개막인데... 절반만 팔린 티켓 어저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개막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입장권의 저조한 판매고를 극복하기 위해 당일권 판매를 결정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25일 도쿄 관저에서 전국지사회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지사를 만나 엑스포 관람객에게 행사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당일권 도입 방침을 밝혔다.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등록박람회다. 1970년 같은 곳에서 열린 오사카 엑스포와 구분하기 위해 일본 후술의 중서부를 통칭하는 간사이가 행사 명칭에 추가됐다.

문제는 엑스포 입장권의 저조한 판매 실적에 있다. 지지통신은 "엑스포 예매권 판매고가 지난 19일 기준 787만장으로 집계돼 목표치인 1400만장의 56.2%에 그쳤다"며 "행사장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전자입장권 사전구매와 예약제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복잡한 판매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입장권 구매 방식을 간소화해 예약하지 않고도 엑스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이날 당일권 판매제를 도입했다. 협회는 엑스포 전시장에 중복으로 방문할 수 있는 성인 기준 3만엔(약 29만원)짜리 입장권 '통기 패스'를 4-5월 관람객에 한해 2만4000엔으로 할인하고, 오전 11시 이후로 입장 시간을 제한했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 '4300억 소송' 당한 그린피스 "파산 위기...50년 운동 끝날 수도"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운명을 결정할 소송이 시작됐다. 송유관 관련 기업으로부터 3억 달러(약 4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그린피스는 패소할 경우 파산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BBC 등에 따르면 24일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3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 절차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어 약 5주 동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6년과 2017년 그린피스가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재정적 피해를 주고, 직원과 인프라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고, 에너지 트랜스퍼의 '다코타 엑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피스 미국사무소의 수석 법률 고문인 디파 파드마나베는 "이 소송은 그린피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넘어 시위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험한 법적 관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위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판을 담당하는 노스다코타주 미국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주라는 점에 있다. 더그 버검 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무 장관을 맡고 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켈시 워런도 트럼프의 주요 기부자 중 하나다. 그린피스는 이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린피스가 보수적인 노스다코타주에서 배심원단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해당 재판의 피고로는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뿐 아니라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그린피스 펀드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까지 지목된 상태다. 또한 3억 달러는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패소 시 그린피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패소하면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는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 있으며 50년 이상의 환경 활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재판의 피고로는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뿐 아니라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그린피스 펀드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까지 지목된 상태다. 또한 3억 달러는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패소 시 그린피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패소하면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는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 있으며 50년 이상의 환경 활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 머스크 '공무원 업무보고 요구'에 일부 부처 반기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안보·정보 부처 책임자들이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텔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모든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머스크 지시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개버드 국장은 "우리 업무의 본질적 민감성과 기밀성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 직원들은 인사관리처(OPM) 이메일에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악관 직속 OPM은 머스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업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케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FBI는 국장을 통해 모든 검토 과정을 책임진다"며 응답 중단을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도 머스크의 지침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CNN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본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며 "다른 곳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방부에선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연방 공무원 감독에 나선 머스크는 지난 22일 엑스에서 "모든 연방 직원은 지난주 수행한 업무를 요약해 제출해야 한다"며 "회신하지 않으면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했다. 곧이어 OPM은 성과 목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회신 마감 시한을 24일 자정으로 지정했다. 기밀 정보는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이 담겼지만 정보 분야 부처의 업무를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기밀 유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머스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좌파들이 단순한 이메일에 흥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머스크의 지시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NYT는 일부 장관급 인사의 반발이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치는 머스크의 권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주요 사례"라고 전했다.

## 獨 차기 총리 유력 메르츠 "美 안보 의존 끝내야"

독일 총선에서 중도보수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이 제1당을 차지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계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민·기사당은 함께 득표율 28.6%로 1위에 올랐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8%를 득표하며 제2당에 등극했다. 독일 유권자들이 초강경 난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당들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울라프 슈olz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16.4% 득표에 그쳐 집권당에서 제3당으로 추락했다.

선관위는 연방의회 630석에서 기민·기사당이 208석, AfD가 152석, 사민당이 120석, 녹색당이 85석, 좌파당이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좌우 대연정'이 성사되면 의석 과반을 확보해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 슈olz 총리는 사민당이 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연정 협상 참여는 물론 차기 정부 임각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좌우 대연정의 길을 열어줬다.

기민·기사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면 기민당 대표였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과거 메르켈의 정적에서 유력 총리 후보로 돌아온 메르츠 대표는 투표 종료 직후 현지 방송에 출연해 "나에게 최우선 순위는 유럽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며 "독일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수습기간 이어진 미국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29. 한재명 (1869-1945)

한재명(韓在明)은 1869년에 한성부(서울)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1904년에 조동에 거주하였는데 그는 상처를 앓아보았다. 하와이 노동 이민을 꿈꾸던 그는 인천을 거쳐 일본에서 몽골리아 선박을 타고 35세가 되던 그해 12월 9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Han Chai Myeng으로 표기했다.

한재명은 노동 기간을 마친 후 호놀룰루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08년 11월 30일에 미국 본토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가 통합에 합의했을 때 한재명은 한인 합성협회 대표로 참여했다. 이듬해 2월에 그가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국민회를 창립하였고, 국민회 산하에 공립협회는 북미지방 총회로, 한인합성협회는 하와이 지방총회로 개편되었다. 그해 그는 하와이 지방총회 총무 겸 구제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인망이 있었다.

1912년 2월에 하와이 지방 총회 헌장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한재명은 박상하, 고석주, 주인준, 박기흥과 함께 하와이 지방 총회 헌장 기초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회장 최정익이 그해 10월 19일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1차 대표원 의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집하여 중앙총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때 하와이 지방 총회는 중앙총회장 후보자로 윤병규와 부회장 후보자로 한재명을 추천할 정도였다. 그런데 한재명은 정철래와 함께 중앙총회 총무로 선임되었다.

한재명은 1914년 5월에 하와이 한인 청년회가 조직되어 행정부 회장에 이승만이 선정되었을 때 한재명은 박용만 등 9명 이사부 임원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으며, 그리고 그는 국민회 편집인으로도 활동했다. 그해 이후 한재명은 독립운동에 자금을 후원하여 1937년까지 매년 지원했다.

제10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15년 2월 24일에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에서 감독 에드윈 H. 휴즈 박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그달 28일

까지 나흘 동안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윌리엄 H. 프라이 박사였고, 한국 총무는 임준호 목사였다. 그 외 한국인 임원으로는 일본인 C. 나카무라 목사와 함께 김이제 목사가 재무부 부총무로 활동하였고, 홍치범 목사가 한국어 통역관이었다. 그해 10명의 정회원 중 한인 목사는 2명이었는데 9년 차의 홍치범 목사와 8년 차의 김이제 목사였고, 5명의 준회원 중 한인 목사는 4명이었는데 과정을 마친 홍한식 목사와 4년 차의 임준호 목사, 조연택 목사 그리고 이선일 목사였다. 그리고 수련자 6명 중 한인 수련자는 4명이었는데 3년 차의 이관복, 박세환, 김재성 그리고 2년 차의 차운중이 있었다.

한재명은 조석진과 안원규와 함께 1915년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오아후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임종순이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본 교회 시무 목사는 파송하지 않았다. 하와이 선교연회가 연두에 두었던 홍치범 목사가 그해 2월 하와이 선교연회 이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홍한식 목사를 임시 목사로 파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달에 홍치범 목사가 보고한 교세 통계에서 한재명이 권사로 파송되던 1915년 2월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82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34명이었으며, 세례 교인 중 25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5명이 세례를 받았고, 12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4명이 이명하여 학습 교인이 되었고, 입교한 자는 없었다.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직원과 교사가 13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200명에 2명이 모자라는 198명이었으며, 엠피스 고등부에 37명이 등록하였다. 예배당이 두 곳에 있었고, 두 예배당과 본 교회 소유의 한인 학교가 당시 시가로 25,000달러였으며, 건물 부채가 5,000달러였고, 건물 수리비로 500달러를 지출했다.

1916년 1월 23일 주일 오후 3시에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가 호텔 길과 베레타니아 길 사이에 있는 편지봉 길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헌당식을 가졌다. 프라이 감리사의 인도로 진행된 헌당식에는 제일감리교회 L.L. 루프보로 목사와 이승만 박사와 홍한식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선교연회 재무리처드 트렌트와 제일감리교회 회계부장 존 맥타겟트가 연설하였다. 함께 연설한 C.B. 리프리가 설계하였고, 산코 건축회사가 7,000달러 공사비로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16년 2월에 보고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통계에서 지난 해와 교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3명이 많은 85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4명이 많은 138명이었으며, 세례 교인 중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3명이 적은 22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1명이 많은 6명이 세례를 받았고, 4명이 많은 1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작년과는 달리 이명 학습 교인은 없었고, 작년과 같이 입교한 자도 없었다.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직원과 교사가 작년과 같은 13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3명이 적은 175명이었으며, 엠피스 고등부에 1명이 많은 38명이 등록하였다. 예배당이 두 곳에 있었고, 두 예배당과 본 교회 소유의 한인 학교가 당시 시가로 7,000달러가 많은 32,000달러였으며, 건물 부채가 245달러가 적은 4,755달러였고, 건물 수리비로 6,422달러가 많은 6,922달러를 지출했다.

하와이 선교연회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송헌주 목사를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시무 목사로 파송하기까지 9개월이나 호놀룰루 한인 감리교회에서 시무 목사가 없었다. 그에 더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1914년)

여 국민회관 건축과 한인중앙학원으로 하와이 한인 사회에 평안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 한인감리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했으나 위의 통계로 보면 교세는 1년 전과 비슷했던 것 같다.

1916년 2월 17일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1회 미국 북감리

교 하와이 선교연회는 한재명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제일한인감리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듬해 1917년 3월 8일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된 제12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도 그를 파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1916년과 1917년에도 그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1918년 3월 14일에 제13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에드나 라이트 레오 나르드 감독의 사회로 개최되어 그달 17일까지 있었다. 본 연회가 1916년 이래 파송한 송헌주 목사가 1917년에 교회를 떠나자 그해 방화중 목사를 임시 목사로 파송하였다가 1918년 3월에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시무 목사로 파송하였다. 안완규, 남세연, 백낙M 이상 3명을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면서 한재명을 위시하여 이태성과 연계승 이상 3명을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해 3월에 보고된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34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60여 명이었고, 지난 1년 동안 14명이 세례를 받았고, 17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5명이 입교하였고, 20명이 학습을 받았다. 교회 학교는 한 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11명이었고, 등록된 학생은 103명이었다. 엠피스 청년회에 35명이 등록하였다. 11,000달러 시가의 예배당과 5,000달러 시가의 사택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두 건물에 350달러를 지출했다. 그리고 훈련비로 50달러와 기타 용도로 380달러를 지급했다.

그런데 1918년 7월에 한인 사회의 분열과 분점으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분열되었다. 그달 29일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신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해 12월 23일에 한인기독교회로 명명하였다. 이전에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 목사로 활동하다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남가주 대학을 졸업한 민찬호 목사가 한인기독교회 시무 목사로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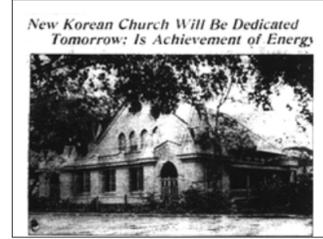
분열의 소용돌이에 가운데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약화하여 1919년 3월에 재적수가 130명이었고, 주일학교 교사가 3명이었으며 60명이 등록하였는데 1920년에는 그나마 절반가량 줄어 70명이 재적했으나, 주일학교 교사는 성장하여 교사와 직원이 7명이었고, 75명이 등록하였다.

한재명은 1919년 이후 교역자로 파송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1915년부터 1916년까지, 1918년부터 1919년까지 2년간이었다.

그 후 한재명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서 한인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한재명은 1919년 10월에 호놀룰루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합자한 중앙장우회를 세울 때 12명 임시 이사원 중 한 명으로 활약했다. 그는 1920년 3월에

광림대에 이어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원이 되었고, 다음 달 4월에 중앙총회 재무 대리를 겸하였으며, 그해 12월에 북미 총회 총무로 활약하였으며, 이듬해 총무와 북미총회 사무원으로 활동하였고, 신한민보사 사무원으로 도 활동했다.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던 사무원 마켓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도미하였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때 북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1916년)

미총회장 최진하가 1921년 2월 16일 오후 6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켓 선교사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의 개회로 일동이 애국가를 부른 후 황사선 목사가 기도하였고, 회장이 취지 설명을 한 후 정인과 목사가 환영사를 하였으며, 국어학교 학생들이 창가를 부른 후 은잔 한 개를 기념품으로 수여하였다. 마켓 선교사가 한국 안에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고 (독립 등) 한인들이 원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연설이 있고 나서 총무였던 한재명이 답사를 하였다.

한재명은 1923년에 북미지방 총회 학무에 재직했고, 1924년과 1925년에 걸쳐 북미지방 총회 부회장 겸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6년에 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지방회 실업원으로 활동하였고, 1927년에 새크라멘토 지방회 서기를 맡았다. 1931년에 한재명은 로스앤젤레스 공동회 국어학교 교육 위원이 되었고, 그해 12월에 미주 한인연합회 로스앤젤레스 한인공동회 대표 겸 연합회 서기로 선출되었으며, 1935년에 로스앤젤레스 삼일학교 교육부 원장과 교미 30년 기념회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1936년에 북가주 대표로 재미 한인 사회 발전책 실행위원 21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대한인 국민회 로스앤젤레스 대표와 6인 중앙집행위원 후보 중 한 명이 되었으며, 1939년에 국민회 시사 위원으로 선정되어 중일전쟁의 정세와 재미 한인의 대의 선전 방침 등을 연구하였다.

한재명은 1945년 9월 12일에 향년 76세에 미국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로즈데일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에 그의 독립운동을 인정하여 한재명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말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escolic@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20 Morris Rd, Lansdale, PA 19046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양육회: 오후 8:00 수요일, 금요일, 종교음악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01748	<b>센터발한인장로교회(PCA)</b>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양육회: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5, www.korea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rlottesville, VA 22912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3:3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00 Tel: (307) 344-6446, Fax: (3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orage, AK 99518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nesdale, PA 19044	<b>킬린노드리교회</b> 담임목사: 양광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양육회: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 213-1200, (254) 658-3176 1000 E. Velasco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목, 금, 토, 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703) 8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목, 금, 토, 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636-6675, www.lacoma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I. 칼빈의 신앙의 핵심

4. 죄의 용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의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 길은 무엇인가? 죄를 용서 받는 길이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우리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찾아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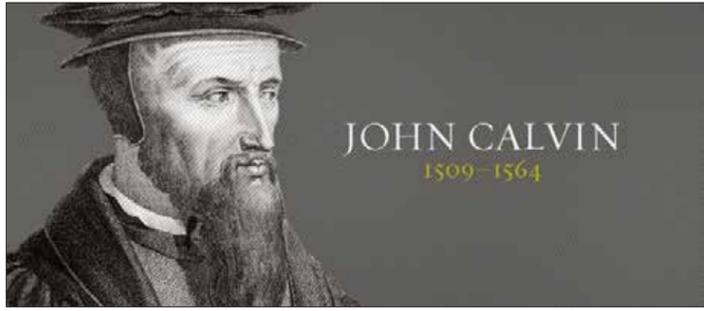
1) 먼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관대하고 인자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그분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약 4:6, 벵전 5:5 (잠 3:34 인용)).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분께 기도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사면해주시다.

우리가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원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찾아올 것이며,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받아 그의 계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렘 36:26).

2) 이 모든 복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한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1-14)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인약을 맺으셨다. 곧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연합시키셨다(사 5:4-11).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의 공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치려야 할 빛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켜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자기 몸에 죄의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그 형벌로부터 사면하신다(엡 2:3-5; 골 1:21-22).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온갖 부요한 하나님의 복락들을 모두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끼지 않는 손을 펼치사 그 복락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요 1:14-16; 7:38; 롬 8:14-17).

3) 이 복들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것이다. 마귀의 권능과 사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며 모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거룩하게 되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부패된 욕구들, 육신의 자극들, 모든 뒤떨린 것들이 죽어간다.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쏟아내는 것들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서(고후 4:16) 마침내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며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롬 6:4).

4)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조건 없는 죄 사함,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 성령의 선물들과 은혜들, 만일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것이 능력이요 진리임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롬 3:21-26; 5:1-11).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바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보화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한 온갖 성령의 선물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으로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함이 그분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5) 우리에게 그분이 없는 결과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성품이 어떻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멸과 혼란,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온갖 소망은 끊어져 버릴 것이다(요 3:18-20; 요일 5:12). 그러면 우리가 본종교하는 것과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렘 31:18-20). 거룩한 선하심과 자비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 요청에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호소해야 한다.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우리의 안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 모임 이야기 (2) '새 마음'

한부모들의 저변에 깔린 불편한 감정의 하나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사별로 혼자된 한 남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외로워서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지만,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만나 함께 산다고 해도 외로움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함께 혼자서 외롭다면 돌이켜도 외로울 수 있고 외로움 피하려다 오히려 괴로움을 만나느라 결과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론 것 없이 살았던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건널목의 적색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외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힘껏 노력하며 살았지만, 이제껏 이론 것,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은 '왜 네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겠느냐?'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길을 건넌다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함께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길지도 않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은혜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순순히 물러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여류시인은 "외로움은 자아의 빈곤이고 고독은 자아의 풍요로움이다"(Loneliness is the poverty of self, solitude is richness of self)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립의 부정적인 경험, 즉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기분으로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 고립감과 무기력을 느끼게 될 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심한 경우 치매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치료법은 결국 고독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고통으로 본다면 고독은 자신 혹은 창조주와 침묵 속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성경 통독이나 필사를 하면서 혼자로서의 자유와 행복에 빠져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언 4:23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선조 대왕은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 결과로 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육지에 올라 도망수, 권을 장군을 도우라”는 것이지요. 이 어명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금

신전선(今臣戰船) 상유십이(尙有十二)” 곧 “신에게는 아직 십이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상소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 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희망이 없다고 하는 데 유

독 이순신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목회의 비전과 희망의 그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보려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계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은 “이민 교회의 희망은 없다 너무 애를 쓰지 말라. 희망을 포기하고 편안히 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즈음에 이순신 장군의 상소문의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전력이 괄목할 만한 곳이 못 되어도 다시 한번 더 희망을 갖고

성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처지가 빈약 하고 주변의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의 대승리를 이룬 이후에 왕후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죽기를 청하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우리는 종종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 같은 심경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신념과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더 늦기 전에 희망의 성취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너무 일찍 희망을 포기하면 더 이상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길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의 길을 가이 드 하십니다. 절망적인 인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이지요.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희망의 연을 하늘 높이 날려 봅시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매우 의기소침하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희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에 주어진 삶의 시간의 한계를

인식함으로 너무 쉽게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시민적인 안락한 생활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약한 인간이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생각과 인식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기울어져 가는 인생의 후반에 아직 남아 있는, 살아 있음의 소중성을 깨닫게 된다면 희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외침을 세상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cyd777@hotmail.com



제30회 LA 아트쇼가 LA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30회 LA 아트쇼 열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LA 최대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예술 박람회 LA 아트쇼가 2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LA컨벤션센터 사우스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아트쇼는 카산드라 보이아가스 프로듀서이자 감독의 지휘아래 한국을 포함 LA, 스위스, 영국, 프랑스, 뉴욕 등 국내 및 전 세

계 현대미술과 현대 예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전 세계 90개 이상의 갤러리, 박물관 및 비영리 예술 기관에서 그림, 조각, 종이 작품, 설치, 사진, 디자인, 비디오가 전시되어 있다. 이번엔 참여한 한국 갤러리들은 제이제이아트, 아트인동산, 아트월, 위드, 라포렛, 아트플러스월드, 투

고 라은진 목사 장례예배



고 라은진 목사의 장례식이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열렸다

고 라은진 목사의 장례식이 지난 2월 22일(토) 오전 11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에서 라스베가스목회자협의회장으로 열렸다. 임인철 목사(라스베가스중앙교회)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제니퍼 하지먼(Trinity UMC) 목사의 기도 후에 박은호 목사가 스가라 14:1~5까지의 성경말씀을 봉독한 후 둘째 아들 라삼의 조카, 이재광 목사가 '거룩한 자

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저자호 한알교회의 이기용 목사와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고 신상만 목사(칼팩 UMC 목사)가 조사를 했다. 라스베가스 한인교회 목회자 부부 찬양단의 조가 후, 라철진 목사(생명의 문 감리교회)가 유족인사, 정용지 연합감리교 은퇴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지난 2월 5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라은진 목사는 미 연합감리교 대저스 사우스웨스트 연회에서 1994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2년부터 미국에 거주했다. 1967년 양정중학교, 1972년 경신고등학교, 1978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미술학사), 1992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졸업했다. 가족으로는 라상화 사모와 두 자녀가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스톤스갤러리아다. EK갤러리에서는 폴 아트 리, 페니 이 작가의 회화작품 17점과 김영신, 제니퍼 최 작가의 도자기작품 8점을 전시했다. 특히 예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를 해 나가고 있는 폴 아트 리 목사는 LA 아트쇼가 열리는 기간과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르살롱 캐피탈 아트에서 시편 121편 7-8절을 바탕으로 만든 '생명의 빛-보호'라는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폴 목사는 "프랑스 르살롱 캐피탈 아츠가 원래 일정보다 2주 연기되어 열리는 바람에 LA아트쇼에서 동상수상작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으며 "LA아트쇼에 참석하여 저의 작품을 감상하는 자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호사랑선교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

제12회 “호 글짓기 & 그림 공모전” 개최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호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12회 호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대회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이며 부제로 1.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2.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3. 나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가? 로 정했다. 시상은 대상 2명(각 부분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하이브상 2명 (11grade에 한함), 심사위원장상 4명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올해부터는 각 학년별로 최고상으로 글짓기 13명, 그림13명 학년별 26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Korean American으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인 정치인이 수여하는 상장을 받을 수 있다.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타 주 청소년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상장과 상금도 집으로 우송해 준다. 참가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선착순으로 100명. 접수기간은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접수 마감하며 시상식은 4월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축하공연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은 https://www.hysarangusa.org에서 신청할 수 있고 QR코드로 온라인참가신청서에 접속할 수 있다. (가사제공: 호사랑선교회)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한 논쟁을 놓고 내가 가장 많이 속고한 부분이 이점이다. 다양한 논증들을 합칠 때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논증 하나하나가 약해 보일 수 있다. 언젠가 말했듯, 우연성 논증이 보여주는 건 단지 필연적인 존재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 뿐이다. 인과성 논증의 경우에는 우주가 그 자체 외부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설계 논증은 어떤가? 우주가 어떤 종류의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도덕성 논증은 설계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면에서 자비로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증을 합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통합된 사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특히 지금처럼 생생하게 말이다. 샌저의 결론이다.

에 대한 누적적 사례를 제시한다. 철학적 추론, 우주의 아름다움, 인간의 깊은 실존적 갈망 등 여러 증거가 모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그리스도인의 인격,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도 또는 밀어낼 수도 있다. 샌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을 언급하며, 그들이 기독교의 믿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애로운 태도와 신부신론자들의 사악한 태도를 비교한다. 오히려 회의주의 측면에서는 신부신론자들과 그가 공유하는 게 많은데도 말이다. 그가 온라인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진지하고도 친절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의견을 더 신뢰할 수 있었다. 신부신론을 접할 때면 불쾌감이 극에 달해서 '아니, 나도 저 사람들이랑 비슷했던 적이 있었나?' 자문까지 할 정도였다. 뭐, 나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기에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친구들에 대한 나의 존경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성숙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기독교 비판자들은 종종 사악한 괴물처럼 행동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중 일부도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그

들 중 일부는 매우 지적이었다. 이상했다. 점점 더 커지는 반기독교 정서 속의 불쾌감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우리는 이 교훈이 주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불쾌하고 트롤 괴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성경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자료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도구이다. 기독교를 향한 샌저의 따뜻한 심층적인 성경 연구로 불타올랐다. 호기심이 많고 단호한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 즉 학습 계획, 해설, 성경 앱, 지도를 활용하여 한때 철학에 적용했던 바로 그 세심한 분석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했다.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정말 충격과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나는 크게 놀랐다. 성경이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찾은 문제들을 이전에 생각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답을 찾아나갔다. 나는 틀렸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가 찾은 모든 문제를 이전부터 생각해왔을 뿐 아니라,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계산해 놓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답을 믿지 않았다. 어떤 답은 조작되거나 있을 법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어떤 답들은 충격적일 정도로 그럴듯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무

려 2천 년이 된 신학 전통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데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신학은 성경에 담긴 수많은 사상을 체계화하고, 조화시키고, 설명하고, 어느 정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성경 속 모든 풍부함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는 작업이 바로 신학이다. 성경이 실제로 흥미롭고 또 그럴듯한,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다는 건 내 머릿속에 떠오른 적이 없는 명제였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표현했다. 성경 판매가 증가하고, 다양한 철학자와 해설가가 성경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성경을 당혹스러움의 원천이 아니라 끝없는 보물 창고로 여겨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

래리 샌저를 위한 기도

래리 샌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읽고, 쓰고, 생각한다. 지금 그는 다른 교파의 주장을 조사 중이다. 그는 교회 출석뿐 아니라 신자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가 새롭게 찾은 믿음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잘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다. by Trevin Wax, TGC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2월 정기 자문위원회 및 이사회

연세대 남가주동문회(회장 이원모)는 지난 2월 13일(금) 오후 5시, LA에 있는 흥연 식당에서 2025년 정기 자문위원회와 정기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20여 명의 자문위원들과 이사회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급변 동문회 임원과 산하 단체를 소개하고 올해 사업 목

표인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수립했다. 자문위원회와 이사회는 남가주 동문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는 동문회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사제공: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정기 자문위원회와 이사회가 열렸다

## 동부교계 기사관

###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회장 허민수 목사)는 3월 4일(화) 오전 10시 베이직교회(이상만 목사 시무 385 Howland Ave, River Edge, NJ 07661)에서 열린다.  
▲ 문의: 201-403-4711

### KAPC, 뉴욕서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회장 임일송 목사)는 3월 4일(화) 오전 9시 뉴욕백민교회(임일송 목사 시무 2 Murray Hill Road, Scarsdale, New York 10583)에서 열린다.  
▲ 문의: 847-660-4738

### KAPC, 뉴욕노회 제96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회장 임영건 목사)는 3월 11일(화) 오전 10시 새벽별주립교회(정기태 목사 시무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에서 정기노회가 열린다.  
▲ 문의: 917-733-7387

### 메시아 평생교육원 봄학기 개강

위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3월 12일(수)에 2025년 메시아평생교육원 봄학기를 개강한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면 된다.  
▲ 문의: 이영식 목사 703-286-9155

### 벨엘교회, 2025 선교부흥회

벨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오후 7시 30분 '삶터와 세계선교'라는 주제로 강동진 목사(보은예수마을)를 강사로 초청하여 2025 선교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410-461-1235

### 퀸즈장로교회, 제38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3월 10일(월)부터 4월 19일(토)까지 오전 6시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 16:17)'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8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 문의: 718-886-4040

### 디딤돌아카데미, 2025학년도 봄학기 평신도 사역자 과정

디딤돌아카데미(원장 양춘길 목사)는 2025학년도 봄학기 평신도 사역자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3월 13일(목)부터 5월 2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양춘길 목사(소명발전), 이수일 박사(그림대화법), 박길재 목사(크리스찬 정체성), 한동원 목사(신약파노라마)가 맡아 진행되며 등록비는 개인 100불, 부부 150불이다.  
▲ 문의: 서병용 사무처장 201-739-7733

### 월드미션대학교,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WMU)는 3월 10일(월)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시무)에서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이라는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강사는 김영길 목사(LA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임성진 목사(WMU 총장), 남종성 교수(아시아인 아메리칸 영성센터 디렉터), 최윤정 교수(PCCE 디렉터), 신선목 교수(소그룹 사역센터 디렉터)이다. 참가신청은 QR 로 하면 된다.  
▲ 문의: 213-388-1000



## 도파민 미디어는 디지털 라스베가스이다

(1면에서 계속)

쉬지 않고 화면을 넘기도 또 넘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박 중독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의 뇌를 재구성한다.

도파민 미디어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어떻게 다른가?

도파민 미디어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차별화하는 것이 단지 슬롯머신 디자인뿐만이 아니다. 도파민 미디어의 핵심은 지속적인 접근성과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큐레이션이다. 포스트맨이 살던 시대에만 해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게다가 텔레비전은 물리적인 로고는 고정되어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려면 전기가 들어오는 방에 앉아야 했다. 게다가 특정 채널에서 특정 시간에 방송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일정은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었다. 케이블 네트워크가 HGTV, Food Network, Comedy Central 같은 틈새시장을 겨냥한 공간을 치고 들어왔지만, 텔레비전은 사실상 단 한 번도 개인화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도파민 미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물리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동이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없다. 일정도 없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인공 지능에 있다. 광고에서 비디오, 게시물, 검색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앱과 플랫폼에서 보는 모든 내용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고급 AI로, 당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꼭 맞는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을 위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당신의 소셜 미디어 피드는 맞춤형이다. 모든 건 당신이 중독되도록 설계되었다. AI가 가진 당신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고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다. 마치 디스토피아의 디지털 파블로프처럼, AI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추적해서 당신이 중독되도록 만든다. 오로지 하나의 목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 죽도록 산만하기

"즐겁게 만든다"라는 동사로는 도파민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한 번도 개인화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도파민 미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물리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동이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없다. 일정도 없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의 뉴욕기도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세기총 미동북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뉴욕기도회 "온더 크로스, 기도의 힘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와 열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미동북부(회장 김태수 목사)는 2월 21일(금) 오후 6시45분,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시무)에서 제1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뉴욕기도회를 개최했다.

회장 김태수 목사는 "자유 평화통일 기도 운동을 '온더 크로스(On the Cross)'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십자가를 중심으로 통일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온더 크로스 통일 플랫폼은 △십자가 운동 △조국 통일을 위한 영적 전쟁 △한국전 참전 용사 영결 △통일 역량 강화 연구로 구성되며, 이 운동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는 사회 육민호 목사, 기도 전광성 목사(미동북부 부회장), 설교 김태수 목사, 헌금찬양 황진호 집사, 축도 신현택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태수 목사는 "한국적 평화통일의 길(에스겔 37:15-22)"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에브라임과 유다가 형제의 연합을 이루듯 조국 통일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정결해야 하며, 통일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를 역설했다. 그는 "한국적 통일 기도 운동을 지속하며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하며,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6:25 참전 용사에게 참전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감사장과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김영천 목사가 인도한 통일 기도회는 △국가: 자유민주정치·경제 체제정립을 위하여(권케터린 목사-세기총공동회장)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전적 갱신과 부흥이 되도록(김택용 목사-미동북부 특별위원) △이민과 선교: 3만 선교사, 700만 디아스포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전희수 목사-세기총 공동회장) △한미동맹: 혈맹과 복음동맹의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김성은 목사-뉴욕 시온성교회) △통일: 한반도·자유 평화통일을 위하여(김영천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3부 특강(박준열 목사, 세기총 미동북부 뉴욕지회장)은 통일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북한 동포들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일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통일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강 후, 남북통일을 위한 통성기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김성국 목사가 정길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안수하고 있다

## 퀸즈장로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예배 "교회여 일어나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설립 51주년 기념 예배를 2월 23일(주일)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기념 예배는 송요한 목사(러시아어권 담당) 사회로 시작되어 G2G 어린이들의 "동글게" 서창, 기도 송동을 장로, 성경 봉독 채유지 목사(중국어권 담당),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의 "예수 열방의 소망"을 찬양한 후 김성국 목사가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교회여 일어나라!(이사야 60:1-4)"라는 제목으로 전한 설교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정직한 교회 1세대였던 고 장영춘 목사님과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동역자들, 교역자들의 땅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퀸즈장로교회이다. 교회 내 모든 기관 들은 멀춰지지 않고, 일어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가며 세상의 갈길을 비춰주는 교회, 영광을 일깨우는 교회가 됐다. 교회여 일어났는가?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자!"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51주년 기념 영상을 상

영한 후 글로리아싱어즈가 "디사이플"을 찬양한 후 시무장로(정성호), 시무안수집사(이광윤, 윤석현), 권사(정영숙, 최윤희, 윤지영, 이경애) 은퇴식과 명예 권사(이신자, 이영순) 추대가 진행됐다. 답사에 나선 정성호 장로는 "좋은 교회에서 지난 40여 년간 신앙 생활하며 직분을 받아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과 목사님,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선교사 파송은 퀸즈장로교회 장로로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정길표 선교사, 정경애 선교사(캐나, 키르기스스탄) 부부이다. 시무장로들이 다 함께 "파송의 노래"를 찬양한 후 김성국 목사가 안수했다. 정길표 선교사는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주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 증인의 사명을 순교의 각오로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답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회장 송정훈 장로와 임원들이 참석해 지난 다민족대회 개최장소를 제공해준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모든 순서를 김도현 목사(영어권 담당)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제39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 후 참석자들이 선교의 길을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사진 촬영 했다

##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9기 개강예배 "한 사람의 헌신, 세상을 살리는 길"

뉴욕실버미션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2월 24일(월) 오후 7시30분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시무)에서 제39기 개강예배를 열었다.

개강예배에서 김재열 목사(회장)는 "한 사람의 실버 선교사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 하며, 실버 선교의 부흥이 불타오를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한, 실버 선교를 모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노후에 가장 보람된 사역인 복음 전파와 섬김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처음 등록한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사장 최창섭 목사도 인사말을 통해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려 실버미션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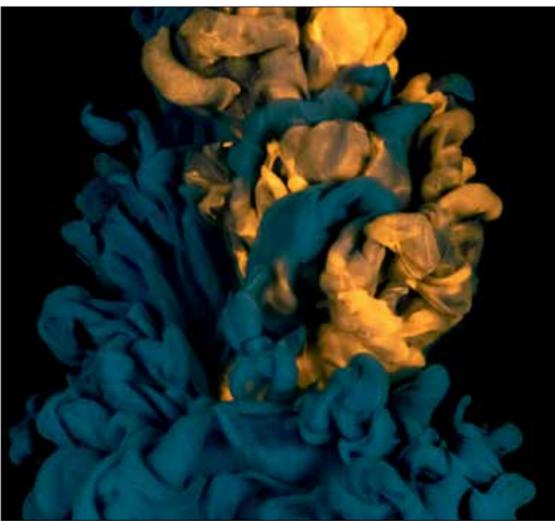
이번 개강예배는 김경열 목사(훈련원장)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박준열 목사(이사)의 기도, 뉴욕실버미션학창단의 찬양, 이한석 목사(퀸즈한인교회)의 설교, 김영환 전도사의 헌금 특송, 황규복 장로(이사)의 헌금기도, 실버영상 홍보, 이형근 장로(이사 사무총장)의 광고 순서로 이어졌다. 모든 순서는 최창섭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날 개강예배에서 이한석 목사는 '소원에서 소명으로 (행 13:46-4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소원을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철저한 계획이나 전략보다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두 주를 믿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교도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욕실버미션학교는 은퇴 후 헌신하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여 실버 선교사로 세우고,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초교파 선교단체이다. 2004년 창립 이후 9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현재까지 13가정의 선교사가 6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뉴욕실버미션학교는 4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주간 선교사 훈련을 진행하며, 오는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온두라스로 단기선교를 떠날 예정이다. 현재 참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이들은 김경열 목사(917-963-9356) 또는 이형근 장로(646-220-8222)에게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을 주사하고 돌아다니는 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적절한 수준에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책임감 있는 사용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히 끊은 사람은 없다.

도파민 미디어가 초래한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중한 어떤 것의] 포기(trade-off)는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 첫 번째 희생자가 시간과 주의력이라면,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희생자는 가족과 관계이다.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행동에 더 중독될수록, 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상에 만족을 덜 느낀다. 이는 생쥐에게도 해당된다. 자유로운 쥐가 우리에 갇힌 쥐를 만나면, 풀어서 주려고 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쥐가 스스로에게 헤로인을 투여하게 놔두면, 그 쥐는 더 이상 갇힌 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헤로인이 더 큰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도파민 미디어에 대한 중독은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비참한 수준으로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또 다른 쾌락으로 유혹하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도파민 미디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하게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기술 형태이다. 도파민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도 결코 생기지 않는다. 도파민 미디어는 우리를 쾌락 추구에 눈이 먼 중독자로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술 혁명이 본질적으로 교회에 제도적, 관계적, 그리고 형성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by Patrick Miller, TGC



GBC주관 나눔은 희망은 콘서트의 마지막날 공연이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OC 장로협 제11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2025 나눔은 희망은 자선콘서트 성료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주관으로 열린 2025 나눔은 희망은 자선콘서트(23일(주일)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를 끝으로 성료됐다. 이영선 목사는 “나눔은 콘서트는 2020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LA산불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려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35,000명 가까이 된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 워십팀과 후원을 위해 함께해 준 청중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LA 산불피해, 전쟁 및 난민 지원을 위한 자선콘서트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은혜’ 작곡가 손경민 목사, 색소폰 이기명 전도사, 찬양사역자 주리, 이윤화 일본 선교사, 피아니스트 김정희 사모가 The 은혜워십팀으로 참여하여 은혜와 감동의 무대를 꾸며주었으며 공연장인 충현선교교회 본당에 찾아온 청중들은 워십팀이 선사한 찬양곡을 함께 부르며 흥

겨운 시간을 보냈다. 국윤권 목사는 “이번 콘서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 12:15)’라는 주제처럼 LA산불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으로 집과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울며 위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경민 목사는 “LA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 그리고 전쟁 난민들을 위한 콘서트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우리 인생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충현선교교회 연합찬양대가 오픈 무대를 꾸며주었으며 The 은혜찬양팀과 함께 ‘주의 은혜라’를 불렀으며 모든 순서는 국윤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2025 나눔은 희망은 자선콘서트는 14일(금) 감사한인교회, 15일(토) 인랜드교회, 16일(주일)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21일(금) 엘바인노리교회, 22일(토)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열렸다. 후원문의는 (714)484-119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OC 장로협 제11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감사예배 드려

“장로협,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진원지가 될 것”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 ‘제11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가 23일(주일) 오후 4시 부에나파코교회(담임 김성남 목사)에서 있었다. 이날 취임한 김종대 회장은 “배기호 이임회장님으로부터 장로협의 회 기를 전달받았는데 협의회 기의 무게감이 올 한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받게 될 무게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역시 매우 무겁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장로협이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해나간다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장로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명철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용기와 담담함을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장로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김영수 장로(9대 이사장)가 이임 이사장 인사말을 신명철 장로(10대 이사장)가 취임 이사장 인사말을 전했으며 배기호 장로(10대 회장)가 이임 회장 인사와 장로

협의회 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 후 김종대 장로(11대 회장)가 취임 회장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좋은마을교회 은퇴), 이창님 목사(주님의손길교회)가 축사했으며 아리랑 합창단과 장로협의 회 회원들의 축송과 김창달 장로가 피아노 특주를 했다. 한편 김용진 장로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황치훈 장로가 기도했으며 바리톤 장상근 전도사의 특송이 있은 후, 김기동 목사(세리토스 중만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행 1:8)’의 제목으로 “장로협 회원들이 복음증거를 위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협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진원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힘든 일을 술선수범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흥운동의 역사가 나타 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베델교회 2025년 봄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류인현 목사

### 베델교회 2025년 봄 부흥회

“더 깊고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을 살자”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부흥회가 지난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류인현 목사(뉴욕 뉴프론티어 교회 담임)를 초청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주제로 2025년 봄 부흥회를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한요 목사 사회로 16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3부 예배는 박성규 집사가 기도했으며, 류인현 목사가 ‘감사하니 행복하다(단 6:1-1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인현 목사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불청객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 본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온다. 위기상황에 처한 다니엘은 평소대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지만 신앙의 충정을 지키는 자였다”라며 “다니엘이 위기상황에서 평소하던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류 목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내 삶의 상황이 영망진창이 될 때이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읊처럼 고난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의 여부이다. 다니엘의 감사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에너지를

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은 상대 감사이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감사이다. 고난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연금술이다. 극한의 고통에 내몰렸어도 하나님께서 모든것 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그리스도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불행의 늪에 빠진다. 그래서 감사의 훈련과 회복이 필요하게 된다.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의 빈곤 속에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회복하고 평생의 삶이 더 깊고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이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결단의 찬양을 부른 뒤 김한요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특별기도회 강사로 나선 김대준 목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특별기도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손경원 목사) 특별기도회가 21일(금)과 22일(토) 양일간 열렸다. 22일(토) 정주영 목사 찬양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기도회는 강사로 초청된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담임)가 창 14장 19-20을 전했다. 김대준 목사는 “기도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 나온다.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다. 당시 아비멜렉은 자 내인 사리를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리를 취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두 번째 단어는 20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 왕의 태가 열리고 왕비가 출산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창세기 21장 1절에 사자가 임하여 이삭을 낳게 된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

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배웠고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질문한 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웠다. 능력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어야 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타코마 제일교회 미래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서부교계 게시판

#### 정필흠 목사 장례예배

재미고신 총회장을 역임하고 로렘장로교회 원로인 정필흠(태석) 목사의 장례예배가 박일룡 목사(재미고신 서부노회장) 집례로 3월5일(수) 오전 10시 서니사이트장의사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12시 사이프레스 포레스트에서 하관예배가 열린다.

▲ 문의: (714)222-1110, (213)700-7575

#### 주소망교회 부흥사경회

주소망교회(담임 임금빈 목사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부흥사경회가 3월1일(토)과 2일(주일) 양일간 개최된다. 이번 사경회의 강사는 다니엘뉴먼 목사(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이며 일정은 3월1일(토) 오전 10시, 3월2일(주일) 오전 9시30분, 오후 12시이다.

▲ 문의: (714) 331-8919

#### 나성영락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창립 52주년 기념예배를 3월2일(주일) 1-3부 예배시간(오전 7시30분, 9시, 11시)에 거행한다.

▲ 문의: (323)227-1400

#### 2025년 세계기도일 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총회장 김영심 사모) 주최 2025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3월1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린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 139:14)’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의 올해 예배문 작성국은 쿡제도(Cook Islands)이다.

▲ 문의: (718)506-4352

#### OC한인교회 찬양예배 전문 인도자 및 반주자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찬양예배 전문 인도자 및 반주자를 청빙한다. 모집대상은 3부 찬양예배 전문 인도자 1명(파트타임)과 찬양예배 반주자 1명(파트타임)이며 자격은 찬양예배 인도 경험 및 음향관리 경험자(찬양예배 전문 인도자)와 찬양예배 반주경험자(찬양예배 반주자)이다. 지원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1부(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사역직 책임자)를 이메일(kcooffice2@gmail.com)과 문서(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38로)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문의: (714)893-1652

#### 2025 보나뮤직 위너스 콘서트

보나뮤직(대표 이해자)가 주최하는 2025 보나뮤직 위너스 콘서트가 오는 3월8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24년 개최되었던 동요대회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이다.

▲ 문의: (213)300-7214



장창수 선교사가 오레곤베델장로교회에서 열린 제14차 베델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오레곤 베델장로교회 제14차 베델선교대회

“선교 동참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역사의 일원으로 사는 것”

오레곤베델장로교회(담임 이돈하 목사)는 제14차 베델선교대회를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는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장창수 선교사(WEC국제선교 동원부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베델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돈하 목사의 사회로 23일(주일) 오전 11시 45분에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는 김삼수 장로 기도, 선교부 일동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장창수 선교사가 ‘내 증인(행 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창수 선교사는 “누군가의 선교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교는 성전을 지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 장소였다. 그 성전이 열방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 성전만을 바라본 그들은 역사의 종말이 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의 당부와 주신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역

사의 시작으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이루는 꿈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을 세계 곳곳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한계에 머물러있는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역사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부인되는 열방의 법정은 선교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직장이 될 수도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며 “담대하게 증언대에 서서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베델교회가 어느 곳에서도 나의 삶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축원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결단의 찬양을 부른 뒤 이돈하 목사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합동신대, 제12대 총장으로 안상혁 박사 취임

#### “학생 목양에 힘써 깊이 있는 개혁신학자로 길러낼 것”

합동신학대학원대(합동신대) 12대 총장으로 이 학교 역사신학과 교수 안상혁(55) 박사가 취임했다. 안 신임 총장은 25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입학 감사예배 및 총장 취임식'에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목양하며, 학생들이 개혁과 사역자의 양심을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신학 교육의 일차적이며 실천적인 목표는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선포하며, 양 떼에게 개인적으로도 잘 먹이는 목자를 키워내는 것이다”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개혁신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도록 지도하고, 도울 것이다”고 했다. 이어 “(초대원장인) 정암 박윤선 목사께서 의미 있게 시작한 목회적 돌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며 “합신의 자랑인 합신멘토링시스템(HMS)이 지속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총장은 특히 적어도 일 년

에 한 차례씩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을 면담해 개혁과 목회자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 총장은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거나 길을 잃은 학우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을 포함해 필요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교 전 구성원과 함께 기도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합동신대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역사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총회장은 “안상혁 신임 총장께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총장직을 힘 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신임 총장에게는 “신학교 3년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힘을 써서,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옹기 분별하는 능력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될 것을 바라며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성문교회, 4년간 연탄 1만2883장 후원

#### 지난해 연탄 3000장 배달, 청년들 '동행' 의 가치 실천

서울 양천구 성문교회(공동체 목사)가 지난 4년간 연탄 1만2883장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문교회 2청년부 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연탄마을에 연탄 3000장 배달(사진)을 비롯해 2021년부터 꾸준히 소의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연탄 후원에 나선 배경엔 '동행'이라

는 가치가 담겨 있다. 청년부 담당 김경선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부 교역자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부활주일에는 국제개발 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추수감사주일에는 연탄은행과 동행하면 좋겠다고 청년부에 제안했더니 청년

들이 흔쾌히 동참해줬다”고 설명했다.

연탄 나눔은 청년들이 ‘나’를 넘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는 계기도 됐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소의 이웃을 섬기라는 뜻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실천을 하게 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도 선한 일을 해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목사는 “이웃사랑을 통해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청년들이 생겨났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섬김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유연합을 지니게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섬김과 후원은 반드시 큰 규모나 오랜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나눔이라도 진심을 담은 것이 나눔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도 부흥회가 필요해요

#### 대전 삼성성결교회, 어린이교회학교 부흥회 개최

대전 삼성성결교회(박상호 목사)가 지난 22일 대전 지역 어린이 교회학교를 위한 일일 부흥회를 열었다. 다음세대 신앙 교육의 위기를 인식하고 어린이와 교사들이 새 학기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흥회에는 많은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석했다. 김덕승 목사(주동성결교회)가 ‘승리 생활하는 믿음의 어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내덕교회 찬양팀이 찬양과 경배를 맡았다.

예배당은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활기로 가득했다. “엄마! 빨리 가!”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서두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함께 뛰며 함성을 지르고 울음을 따라 하며 예배에 적극 참여했다. 교사들도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는 어른이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다. 일부 어린이들은 찬양팀 앞으로 나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김 목사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믿음의 어린이는 예배를 잘 드리며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라고 강조했다. 설교가 끝나자 아이들과 교사들은 함께 바다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김 목사는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라며 기도했고 아이들도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도 후에는 교회별 모임을 가지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흥회에 참석한 강은심 교사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 것과 예미 중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준 시간이 참 은혜로웠다”며 “이런 부흥회가 더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흥회에는 어린이 60%, 교사 40% 비율로 참석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겠다고 다짐했다.



### “기독교 정책 개혁이 저출산 해결에 순기능”

#### 2025 사학미션콘퍼런스 열려

1884년 고종 황제가 교육과 의료 선교를 허용하면서 이듬해 호러스 G 언더우드(1859~1916)와 헨리 G 아펜젤러(1858~1902) 선교사가 조선에 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각각 경신학교와 배재학당 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를 세우면서 근대 교육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140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독교학교들은 탈종교화와 인본주의, 저출생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한 교육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의 과도한 경쟁과 비혼주의·동성혼 등 잘못된 결론관을 부추겨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분석

도 제기됐다.

새사학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4일 서울 중구 엠베서더서울판도호텔에서 ‘2025 사학미션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 기독교학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주제로 열린 자리에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김중준(꽃동산교회 원로) 오정호(새로남교회) 이재훈(은누리교회) 목사와 교역자, 기독교학교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기독교학교의 역할’을 발제한 이재훈 목사는 교육개혁이 저출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정부 각처에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지원과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교육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게도 반복될 것이라 두려움이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면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 출산의 중요성과 학창시절의 행복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분과별 모임으로 기독교학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이수인(아신대) 함승수(명지대) 교수는 ‘담대한 변화를 이끄는 기독교 학교’란 주제의 발표에서 평준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정책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근거리 배정이나 추천 등의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를 임의로 배정하는 제도다. 이들은 “평준화 정책은 교육과정 편성권 제한과 교사 임용권 제한 등으로 기독교학교의 존립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기독교 개발’과 같은 방안을 구현해 기독교학교가 건강하게 존립하고 맡겨진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교수는 “기독교대학이 건강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성’과 ‘대학교성’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분리돼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독교대학의 재판을 통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토) 3.1절 기도회  
 2(주) 저녁~3(월) 서울 임마누엘교회(정요한 목사) 010-2393-0616

새벽, 저녁  
 3(월) 저녁 안산 큰기쁨교회(김승희 목사) 010-3874-5880 연락 김용희 목사  
 4(화)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김영준 목사) 010-9260-1091 주희 : 지선협 삼일절 구국연합기도성회 C채널TV 목회자협의회  
 6(목) 오전 아산서원교회(송창호 목사) 010-8280-6410 CTS TV 부흥회의 영성기도성회 Blessing Event  
 7(금) 오전 Good TV Hold a meeting  
 8(토)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여성총재 임은선 목사, 대표회장 김대근 목사) 충청지역 연합축복 부흥성회 총주세종양교회(사순절 목사, 문동철 목사) 010-7136-7669  
 9(주) 오후 전국원로장로회 3.1절 기도대회(류고성 정로) 010-5265-1501  
 11(화) 오전 김포 은빛교회(정성업 목사) 010-4067-1091  
 13(목) 오전 천안 위대현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14(금)~15(토)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Asia Region  
 17(일)~21(금) 안산 대부도 열림수영관(원장 김우경 목사, 전국목회지영성수련회 010-8898-9141)  
 24(월) 저녁 7,000 기도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본부 Building Conference Event  
 25(화) 오전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중성) 2025년 정기총회 및 축하공연행사

**제245차 해외성회 (245th Overseas Assembly)**

31(월) 오전 KAL 인천(8:10)-몽골(10:50)  
 31(월) 몽골(Mongolia) Ramada by Wyndham Ulaanbaatar City Center Elnabat the Capital of Mongolia  
 4.1(화) 몽골(Mongolia) 몽골원주인 42교회 연합대부흥성회  
 주희 : 기독교인신분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김영현 목사)  
 몽골(Mongolia) 몽골한국인선교교회(손명목 목사)  
 몽골(13시) - 인천(15:10) / 인천 (18:35) - 일본 도쿄 나리타(21:05)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MT) 정스데반 선교사, 김태실 선교사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 심령부흥성회 및 제5기 수료식  
 일본(JAPAN) 도쿄 나리타(9:20) - 인천 (11:45)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9호 409호로 Fax. 02)401-7770



### 외부강사·찬양사역자 사례비가 고민이라면?

#### “재정 어려운 개척교회는 이렇게 섭외해보세요”

개척교회 목사 A씨는 사례금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다. 섬기는 마음으로 주일예배 특송에 나서준 크리스찬 가수에 얼마를 사례금으로 줘야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흔쾌히 특송에 나서준 가수에게 충분히 감사표현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보니 어느 정도 선에서 사례금을 해야 좋을지 막막했다”며 “사례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규모가 있는 교회도 사례비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초청비용 때문에 섭외에 어려움을 겪거나 섭외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있다.

경기도 한 중형교회 담임목사 B씨는 최근 유명 찬양사역자를 초청하려다 섭외에 어려

움을 겪었다. 사역자쪽에서 요구한 기본금액이 외부강사 초청에 책정된 교회 사례금의 약 두배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중형교회 부교역자 C씨는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초청하고 싶지만 강사료가 교회 예산을 초과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 교회에서도 외부강사와 찬양사역자에게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 기독교 설문조사기관 라이프라이시어치의 전 대표이자 교회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목사는 최근 교회성장 컨설팅 기관인 처치앤서스 홈페이지에 ‘외부강사 및 연주자 사례비 책정에 관한 10가지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레이너 목사는 “사례비는 교회와 교회에 초청된 이 양측 모두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고민하는 문제”라며 “그러나 강사를 초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경적 청지기직과 현대의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며 글을 시작했다. 레이너 목사가 제시한 10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관대한 마음으로 지급하기 △초청강사와 기대금액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사례금 지급은 가급적 바로 할 것 △교토비 숙박 등 경비 고려하기 △필요할 경우 호텔 등 숙박시설 제공하기 △사전 서면으로 세부사항 작성해 안내하기 △강연을 위해 희생되는 ‘강연 외 시간’ 고려하기 △추가 강연 일정 요청하지 않기 △진답 담당자 지정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교회 내 환대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레이너 목사는 크리스천 돈 관리 전문가 아트 레이너의 글을 인용해 담임목사 연봉의 0.5%를 기본 초청비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사례금 책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회 규모와 강연 횟수, 강연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그럴 때는 담임목사의 연봉의 0.5%를 회당 기본 초청비용으로 정하고 이 비용에 교통비, 숙박비를 더해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7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들을 만나며” (2)

헬레니즘 문화는 갑바도기아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후에 기독교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정치적 영향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행정 체계를 받아들이며 기존의 페르시아적 요소와 융합되었다. 기원전 3세기에 지역은 독립하여 스스로 왕국을 형성하였으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은 지속되어 정치와 문화에 스며들었다. 이 시대에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로 자리 잡았으며 갑바도기아에서도 상류층과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됨으로 기독교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헬레니즘은 교육과 철학에도 영향을 끼쳐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등의 사상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전파되었고 이는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리스 신화와 지역 신앙은 융합되어 갑바도기아의 자연신 숭배와 그리스 신화가 융합하여 제우스, 헤르메스 등 그리스 신들이 새로운 형태로 숭배된 것을 본다. 특히 초기 기독교 교의와 성화는 헬레니즘 예술 양식의 영향이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신학의 많은 용어가 헬레니즘 철학에서 차용되었음을 보게 된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고스(Logos)는 헬레니즘 철학에서 이성,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였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헬레니즘 철학의 언어를 차용하여 그리스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다.

플라톤주의는 영적세계와 물질세계의 구분으로 기독교의 천국과 세상에 대한 신학적 개념 형성에 기여했다. 스토아 철학은 윤리적 삶과 자기 통제의 가르침으로 기독교 윤리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신학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갑바도기아는 기독교 신학과 교회 지도자들로 잘 알려진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탄생하였다. 바실리우스 대제 (Basil the Great, 329-379)는 카이사리아의 주교로 수도원 개혁과 삼위일체 신학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레고리우스 닛사의 그레고리 (Gregory of Nyssa, 335-395)는 바실리우스의 동생으로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통해 니케아 신조 (Nicene Creed)를 발전시켰다.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Gregory of Nazianzus, 329-390)은 “신학자”로 불리며 삼위일체와 아리우스파 (Arianism) 이단에 대항하는 글을 써서 이단으로부터 정통기독교를 지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본질(ousia)과 본체(hypositasis)의 구분을 확실히 하는 용어들로 설명하였다. 본질은 신적 본질 그 자체를 표현하였으며, 본체는 이 신적 본질의 특수한 형태가 개체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각 위격을 입는 것을 말하였다. 또한, 삼위의 명칭을 예리하게 구분하여 성부는 아버지의 자격 fatherhood, 성자는 아들됨 sonship, 성령은 성화의 능력 sanctification 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나오시지 않은 자” (unbegotten), 아들은 “낳으신 자” (begotten), 성령은 “발출된 자”(proceed)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킨 열매들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를 교회의 신앙으로 발표하고 황제가 확인함으로써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며 정통신앙의 기초를 세웠으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헬레니즘의 문화는 로마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기독교의 세계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만인을 위한 종교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

였다. 갑바도기아는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로 통합되어 로마의 중요한 속주로 발전하였다. 이후 기원전 1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공식 속주 (province)가 되어 로마의 행정 체계, 도로망,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로마는 총독을 파견하여 행정을 관리하고 로마법을 시행하였다. 정치적 안정은 갑바도기아에서 상업과 교역의 발전을 이루었다. 로마는 갑바도기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전역에 도로망을 구축하여 로마와 동방 속주 간의 연결을 강화하였다. 도로는 군사적 이동과 교류 뿐 아니라 기독교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갑바도기아는 동방 (파르티아, 페르시아)과 서방 (소아시아, 로마)을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로마의 도로망은 복음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선교사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을 통해 소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도로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Pax Romana로 불려지는 로마 제국의 안정은 평화로운 환경을 가져왔고, 갑바도기아를 포함한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로마의 보호 아래 상대적 안전을 누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초기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은 기독교의 순수성을 확고히 하고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게 하였다. 초기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박해했으며 갑바도기아 기독교 공동체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재위 284-305)의 박해 기간 동안 갑바도기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 지하도시를 사용하였다. 오늘날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발견된 데리쿨리와 카이막쿨리 지하도시를 보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을 했는지 상상

할 수 있게 한다. 순교자들의 희생은 기독교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순교자들의 증언은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복음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 속에서도 생존하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공인하였을 때에는 갑바도기아는 기독교 박해 시기를 지나 기독교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이후 갑바도기아는 주요 교구와 수도원 중심지로 자리잡고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활동하며 기독교 신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던 지역이 되었다. 이는 갑바도기아가 헬레니즘, 로마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잘 융합하여 지역 문화와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선교적 접근법을 모델링하는 사례로 보여진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로마와 갑바도기아의 관계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환경을 활용하는 중요성,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신학적 깊이를 갖추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까지 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제국의 통치는 단순히 정치적 권력의 변화를 넘어, 문화의 융합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혼합 현상은 복음의 전파와 선교적 접근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제국 통치의 변화와 문화 융합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시대에 히타이트는 철기 기술과 법률 제도를 주변 지역에 전파하였고, 아시리아는 정복 지역에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행정, 종교적 관습 등이 융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며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페르시아의 도로망과 행정 시스템은 문화 교류를 가속화 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현지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술, 철학, 언어를 형성하였다. 로마 제국은 도로망과 행정 체계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다

융합된 문화들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종교적 융합이 일어났다. 그리스 신화가 현지 신앙과 결합해 새로운 신격이 나타나는 경우처럼, 종교적 요소들이 결합 되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적 융합 환경에서 복음을 새로운 언어와 상징으로 전달해야 했다. 언어의 통합이 일어났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 그리스어, 로마의 라틴어는 공용어로 자리잡아,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신약성경이 헬레니즘 시대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언어적 융합의 중요한 사례이다. 문화적 융합은 예술, 건축, 철학 등에서 일어나고,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전승되며 현지 문화와 혼합되었다. 이러한 혼합된 문화는 초기 교회와 기독교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

선교적으로 복음의 보편성과 지역적 적응의 균형을 보여준다. 복음의 보편성은 문화 융합의 맥락 속에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언어, 문화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진리로 자리잡았다. 로마서 1:16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특정 문화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문화적 적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초대 교회는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화적 언어와 상징을 활용했다. 이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지역의 문화적 언어와 상징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복음의 전달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와 교류를 통한 복음 전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로망과 통신망 활용은 로마의 도로망과 페르시아의 왕의 길은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는 오늘날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을 복음 전파에 활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교의 전략 측면에서 문화적 허브에서 복음 확산이 중요하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문화적 중심지(안디옥, 예베소, 고린도)는 초기 교회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었다. 이는 현대 선교에서도 도시 선교와 지역 중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교는 다문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선교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문화 간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적 융합 환경에서, 초대 교회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대화와 이해를 강조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며 복음의 보편적 메시지를 전했다 (고린도전서 9:22).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으니 이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복음으로 변화된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구성된 초대 교회는 복음이 다문화적 환경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선교에서도 다문화적 공동체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선교학적으로 지역 문화의 존중과 복음의 상황화를 배워야 할 것이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서구적 형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언어에 맞게 상황화 해야 한다. 헬레니즘 문화의 로고스 개념을 사용한 요한복음처럼, 지역의 철학과 신앙적 언어를 복음 전달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선교 전략이 중요하다. 제국의 도로망과 교역로가 복음 전파를 촉진한 것처럼, 오늘날 선교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선교와 도시 선교 전략은 현대 선교 환경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과 화합이 중요하다. 초기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은 것처럼, 현대 선교에서도 다문화적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음의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히타이트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제국들의 통치와 문화 융합은 한 지역에서 복잡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 속에서도 복음은 보편적 메시지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문화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었다. 현대 선교학은 이 역사적 사례를 통해 문화 적응과 보편성의 균형, 네트워크와 기술의 활용,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 “특별기고”

## “그날까지 동족사랑연합과 함께 되어질”

강철호 목사  
(그날까지동족사랑연합 이사)

아시아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은 서양 교회사 (초대교회, 중세기, 종교개혁, 현대교회사)를 가르치게 된다. 기독교는 중세기 (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천주교와 동유럽의 동방정교는 초대교회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다. 특별히 16세기부터 서양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파송되어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여 선교역사를 초래하게 되었다.

시대는 변화하였다. 오늘날의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80%의 인구 중 60% (약 50억)를 차지하고 있다. 1800년의 세계인구는 9억7천800만 (978,000,000)이

었다. 그중 208,000,000명이 (23.1%의 인구) 기독교인이었다. 전 세계 2억8000만의 기독교인의 86.5%가 백인 크리스천이었다. 1793년에 영국선교사 William Carey가 인도 동북쪽의 Calcutta에 도착했을 때 아시아의 인구는 단지 602,000,000이었는데 기독교인은 극소수인 0.2%밖에 안 되었다. 그러므로 18세기-19세기에는 아시아교회 역사에 대한 글을 쓸 자료가 얼마 없었다.

지난 2세기 동안 두 개의 인구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현재 아시아의 인구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과 북미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

는 날이 쇠약해지는 상황이며 제3 세계 교회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 수 개국에서 급속도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한국교회 성장이다. 한국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는 1970년도에 한국교회 성장율은 하루에 6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시아신학회 (Asia Theological Association)는 1978년에 김준곤 목사가 Asian Perspective 잡지에 “Six New Churches Everyday” 글을 (12 페이지) 써서 전 세계교회에 알리게 되었다.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이 10년 동안 (1980-1990)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현대화”를 부르짖으며 중국을 개방시켰다. 외국인선교사들을 용납하며 제한된 종교자유를

허락하며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개신교인이 8000만 천주교인이 2000만 총 1억의 중국기독교인을 초래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필리핀의 개신교인 16,300,000명 (인구의 24.7%), 싱가포르 (17%), 인도네시아 (15.8%)로 성장하였고 그 외 대만, 네팔, 몽골리아에도 교회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아시아교회는 전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시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 여러 선교사 단체에서 발표한 아시아 선교사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인도선교사 (30,000), 한국 (24,000), 인도네시아 (3000), 필리핀 (650), 일본 (510), 대만

(560), 홍콩 (500), 태국 (60), 중국 (1,000-2,000). 아시아 선교사의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며 하나님은 아시아교회와 선교사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OMF선교사로 30년간 (1970-2000) 싱가포르, 대만, 한국과 그후 20년간 (2000-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친 배경으로 Asian Church History (575 페이지)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서울/인천에서 모였던 제4회 로잔대회 전에 한국에서 출간되었고 이 대회에 참석한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였다. 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시아의 25개국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 아시아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나날이 증가하는 교회 핍박과 다양한 도전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300권을 출간하여 200권은 경제적으로 미약한 아시아국가에 있는 신학교 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서아시아/중아시아까지 45개 아시아국가에 1,300개 신학교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Digital/Internet로 이 책을 전달되기를 원하며 신학생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시아교회를 잘 이해하고 아시아 복음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rohonolulu@gmail.com

매일가정에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어리석은 삶 (눅 12:16-21) 찬 370장

어리석은 생각을 믿고 산 것이다. 여러 해 쓸 물건은 준비하여 두었지만, 자신의 영원을 위한 준비는 없었다. 즉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다. 자신에게 삶을 주신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

을 위한 인생이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다. 주인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 본문의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다. 장래를 위하여 준비를 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산 것이다. 주인 앞에서 사는 자로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산 것이다.

화 만물의 주인 (눅 12:22-31) 찬 370장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실상을 보고 누리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 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주인이 돌보시며 가르치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은 가장 소중한 자다. 공중의 새가 구하므로 백합화가 창조주에게 구함

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을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시며 수고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안에서 사는 것을 알고 누리라. 오직 주인께 영광을 돌리며 주인을 섬기며 살자! 아멘.

수 새로운 열매 (눅 13:6-9) 찬 370장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찾는 주인이시다. 육신의 것을 누리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것을 누리게 사자로 구원하신 것이다. 생명의 것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것을 누리려고 해서 안 된다. 나에게서 생명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신본은 하나님

의 아들인데 열매는 이전의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삼 년을 기다렸으나 얻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았으니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주인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것이다.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자.

목 진정한 안식일 (눅 13:10-16) 찬 370장

안식일은 있지만 그 날에 안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함을 받고 누리야 하는 것이다.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받고 누리야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십 팔 년 동안 귀신으로 인하여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주님께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안식을 주셨다. 죄로 인한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받아야

한다. 놀림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안식을 받아야 한다.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함을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으며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아들의 소원을 누리려는 안식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것을 누리는 아버지가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라.

금 만왕의 왕을 모시는 삶 (눅 14:7-11) 찬 370장

육신 안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함이 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 육신의 생각의 뿌리는 죄다. 죄는 나를 멸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타나는 생각의 근원을 확인하여 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도록 하라. 자신을 사람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함

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알고 있지 말라. 만 왕의 왕을 모시고 섬기는 거룩한 영광을 깨달아야 한다. 장차 왕의 보좌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 왕을 모시고 섬기는 자여 그는 영광의 복을 받은 자다. 그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왕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깨어 산 사람이다.

토 죄인들을 향한 초대 (눅 14:16-20) 찬 370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대하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이 가로 막고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이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의 것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찾아오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육

신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여야 한다. 대적을 사랑하고 믿고 살지 않아야 한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산다. 진리가 없는 것이다. 육신에 속하여 판단하고 옳다고 하며 사는 것이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만난다.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인 것이다. 생명의 길로 옮겨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고 누림으로 벗어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음악 이야기(71)

시편 150 편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20세기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인 A.W.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 -1963)는 그가 살던 그 시대인 1960년대 기독교를 "지판기 기독교"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퀴러 동전 하나를 넣으면 필요한 것이 즉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유하며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신앙 사상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놀람, 갈망, 사랑, 송부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18세기 초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구자적 선교사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위인 무릎 성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는 한겨울 눈이 쌓인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경배에 몰두했는데 그가 기도를 끝냈을 때는 그가 앉았던 자리의 눈이 원형으로 녹아있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사역하며 감리교가 배출한 위대한 성자 존 플레처(John Fletcher, 1729-1785)는 아무 세간살이도 없는 골방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곤 했는데 그의 사후에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그 골방 바닥이 오목이 들어간 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방의 한 벽면은 그가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내뿜었던 입김으로 인해 변색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 하는 숭모의 정신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시편에서 찾았습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예배의 형태는 변화했지만, 그 예배 안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시편 찬양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한 예배에서도, 신구약 중간기 회당의 예배에서도, 신약 예수님 시대에서도,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도 중세 서방교회나 동방 교회에서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비록 종교 개혁자들이 찬양을 표현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내용은 시편의 찬양을 중심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종결입니다. 즉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총 6절로 구성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대명제인 "할렐루야"를 시작과 종결에서 표현합니다. 시편의 핵심은 할렐루야 즉 야훼(Yahweh)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서(Where - 1절)"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What - 2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행동,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힘을 찬양해야함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How -3-5)"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피조물이 행할 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서 각 시대별로 허락신 조건

과 환경에 어울리게 찬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Who - 6절)" 시편 전체의 최종 종결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에 담겨있는 내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본질적 목적은 그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사43:21)

이 위대한 시편을 역사적으로 많은 작곡가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였습니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또 한 명의 작곡가가 만든것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젊은 작곡가 김신웅께서 곡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말로 된 시편의 가사를 우리의 운율에 맞게 리듬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떻게(How -3-5)" 즉 방법론적인 면을 강조하여 악기들 나팔, 비파, 수금, 속, 현악, 통소 등을 직접 연상하며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먼저 1절을 사용 인트로를 팡파르 형식으로 오픈합니다. 이어 1절의 내용 전체를 풀어서 여성, 남성이 교차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 who 즉,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는 불규칙 박자를 사용 하여 가사의 운율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방법론을 표현할 때는 리듬을 잘 구사하여 모든 악기를 정확하게 나열하는 모습, 때로는 비파, 수금을 글리산도(glissando) 등으로 표현하며 이 곡 전체에서 가장 길게 할애하여 전개 합니다.

성악의 쉽을 위해 비교적 짧지 않은 간주를 전개한 후 첫 번째 멜로디를 다시 짧게 등장시키고 대단원의 종결을 향해 갑니다. 가사의 강조를 주려고 유니스으로 그리고 템포를 천천히 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이 찬양의 드라마를 보며 A.W. 토저가 건네었던 두 분의 믿음의 선진들. 그 신앙의 열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앉아 찬양하는 자리가 마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얼었던 주위가 녹듯,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반응하며 내뿜는 우리의 땀과 열기로 벽면이 변색되어지듯 되어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알면서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게으름뱅이는 더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예배자들에게 깊은 찰림과 도전이 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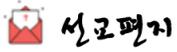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카자흐스탄

## 1. 알마티 퀴즈장로교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알마티 퀴즈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첫 주 신년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65명의 현지 성도가 출석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30명에서 70명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후유증과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평균 출석 100명입니다. 또한 한인 성도들은 현재 2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으며, 점차 주재원들이 오고 있어 올해 출석 목표를 4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 2024년 가을에 '퀴즈 아카데미' 지도자 과정을 시작하였고, 28명이 수료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부터는 '퀴즈 아카데미 중보기도 사역자 과정'을 시작하여 3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예배는 밤 시간에 이동이 어려운 관계로 오후 9시에 줌(Zoom)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평균 27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줌으로 모여 성경을 3-5장씩 읽고 합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하는 전도사는 5명이며, 언어 통역자와 수화 통역자는 교대로 출근하고, 다른 사

역자는 주일에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알마티 퀴즈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봉사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지방교회 사역-우슈토베 소망장로교회

알마티 퀴즈장로교회에서 북동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 우슈토베 소망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지 목사가 생활고로 인해 교회를 떠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3년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슈토베역은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첫 번째 기차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로, 재외동포 고려인들에게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도들 대부분이 고려인이라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일에는 알마티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매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주 왕복 700km(약 4시간 30분)를 이동하다 보니 차량 연진이 고장 나 두 번이나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격주로 토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평균적으로 장년 15명, 주일학생 10명 정도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팀은 저와 통역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아침 5시 30분에 출발하여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갈 때마다 알마티에서 큰 케이크를 구입하여 교제

시간에 나눕니다. 시골이라 도시에서 온 케이크가 맛있다고 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주일학생들을 위해 간식과 선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여 이번 겨울부터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의 여러 부분을 수리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있지만, 사역의 여러 부분이 여전히 기도제목입니다. 2025년에는 내부 도색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천장이 높아 작업이 어렵겠지만, 녹슬고 더러워진 부분이 많아 도색이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종교 용도로 땅이나 건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교회들을 잘 지켜내고, 이 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이 이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 3. 신학교 사역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초, 이웃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새로운 종교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려면 한 지역(라이온)에서 500명의 신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카자흐스탄도 현재 교회 등록을 위해 50명의 서명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년째 신규 등록된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지 사역자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

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소문이 나 신입생들이 꾸준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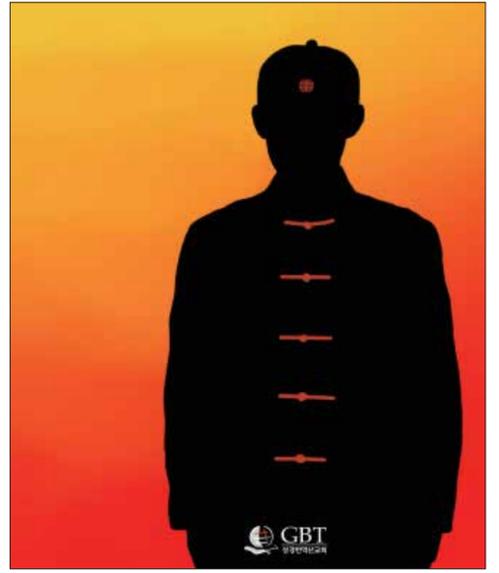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두 개의 신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알마티 분교, 제켈리 분교 (2025년 2월 개교)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680km 떨어진 부하라 분교가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는 수도 비슈켄에서 25km 떨어진 칸트 분교가 있습니다. 현재 알마티 퀴즈장로교회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는 총 4개이며,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졸업 행정비로 학기당 학사 과정은 25달러, 석사 과정은 35달러를 받으며, 해당 금액은 한국으로 송금됩니다. 수업은 한 달에 4~8일, 하루 8시간 진행되며, 교수진은 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동문들과 예상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파송 선교사들입니다. 또한 현지 목사들도 교수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뉴욕퀴즈장로교회 담임목사님의 완전한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
2. 알마티 퀴즈장로교회의 부흥과 성장
3.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4. 우슈토베 소망장로교회의 부흥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품고 성장하도록
5. 신학교 사역을 통해 올바른 목회자가 양육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6.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김관중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민중 한 종족

▲ 인구  
약 3,100,000명

▲ 종교  
무교 36%, 민속 종교 32%, 불교 25%, 복음화율 7%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민중 한족은 민어를 사용하는 한족의 하나이다. 당나라의 역사를 자랑하며, 4대강을 운하로 연결하여 경제를 주름 잡았다. 동방박사가 이곳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주장이 있다. 13세기까지 중국, 몽골에 경교의 형태로 신자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렀다.

## ▲ 기도제목

1. 공용어에 밀려 간과되고 있는 모어 성경의 필요가 잘 이해되어 하루속히 번역이 시작되도록
2. 모어 성경 번역이 부흥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 제출서류(PDF로 제출)

1.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 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5.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3월 29일 2025

## 주의 및 안내 사항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mailto:baegnewlife@gmail.com)

##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	_____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_____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mailto: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mailto: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mailto: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mailto:nychpress@gmail.com)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내 과거를 잊고 싶은 만큼”

뒤로하고 온 조국, 한국으로 부터 또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슬픈 소식은 모두가 이미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을 한창 나이 25세에 스스로 자신의 생을 포기한 인기 연예인 김새론씨에 대한 것입니다. 아역 배우였던 이 연예인을 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창 나이에 스스로 자

신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뉴스마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인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연예인이 악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면서 역시 악플로 세상을

떠난 연예인 고 김선균 씨가 남겼다는 말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줘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겨오다가 내려 놓은지 이제 8년째에 접어드는 저는 이 뉴스를 접하

며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용서받은 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를 셀 수 없이 가르치고 되뇌이면서 나는 얼마나 그렇게 용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렸나를 떠올리니 그렇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저 자신임을 보며 부끄

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12)"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쟁쟁한데 지적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며칠 전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깨면서 문득 '브엘라해로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분명해서 입으로 되뇌었습니다.

누운 상태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일어나 성경을 찾아보니 창세기 16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가끔 성경 구절이 생각나며 껌 때가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람과 사라,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자로서 사라의 여종입니다. 출산하지 못했던 사라는 남편 아브람을 부추겨 하

갈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 후 여주인 사래를 모욕하고 멀리합니다. 사래는 이에 맞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하갈은 학대를 피해 도망을 합니다.

하갈이 광야로 피신하여 어느 샘 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브엘라해로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은 감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칭하였습니다.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여 지은 것입니다.

'브엘라해로이'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시는

주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마른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생수를 주시는 것 같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도망치는 자, 떠돌이, 이방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광야의 하갈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

속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보살펴 주시는 '브엘라해로이'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창세기 16:14)

bible66@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폴립(용종)이란?

대장검사를 하다보면 검사 후에 용종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용종은 제거하지 않고 두면 악성종양이 되어서 나중에 더 큰 수술이 필요하지만 양성용종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도 악성종양이 될 위험은 전혀없습니다. 용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장의 용종은 매우 흔한데

전체 성인의 30-50%에서 발견이 되고 대부분은 악성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또 악성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고 미리 발견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는 용종의 수와 종류, 크기, 위치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서 다음 대장검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용종의 발생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활습관 -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선진국에서는 매우 흔한데 이는 음식과 환경요인이 용종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질이 높은 음식과 쇠고기의 섭취량이 용종발생과 관계가 있고 흡연과 비만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 섬유질이 낮은 식사습관은 용종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반면에 아스피린이나 소염제, 칼슘이 풍부한 음식습관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나이 - 40세 이하에서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환자는 50세 이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검사는 일반적으로 50대 이후부터 시작하게 된다. 또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악성종양으로 변하는 데는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

가족력과 유전 - 용종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장암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장검사를 50세 이전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가족성 선종 폴립증이라고 불리는 유전질환은 대장에 수많은 용종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인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20-30대에도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장암의 가족력이 매우 높은 경우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다.

용종은 크게 그냥 두어도 악성으로 변하지 않는 양성용종과 악성으로 나누어진다. 대장암은 미국내 암사망 원인중 2번째로 흔한데 전체 암사망의 14%를 차지할 정도 흔하다. 양성용종의 일종인 선종성 용종(adenomatous polyp)도 크기가 큰것은 그대로 두면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 용종은 미리 진단해서 제거를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직장) 검사를 통해서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대

장암을 조기에 발견해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기검진의 방법과 시기는 언제일까?

대장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흔히 실시하는 방법은 대변잠혈 검사와 직장경 및 대장경 검사 가장 많이 쓰인다. 또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빈혈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암세포가 대장내에서 자라게 되면 미세한 출혈을 하게 되는데 출혈의 양이 적을 때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대변잠혈 검사는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지 판별하는 검사인데 잠혈검사를 통해서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혈액검사와 대장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검진을 시작하는 나이는 50세인데 대장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얼마만에 재검진을 할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대장검사 결과로 볼때 대장에 용종이 전혀없

는 경우는 5-10년후에 재검사를 받으면 되고 잠점사상 선종성 용종(adenomatous polyp)이 발견되면 제거한후 일반적으로 3년후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선종성 용종은 3년안에 재발할 가능성이 25-30%정도 되고 용종의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검사를 추천할때는 조직검사 결과와 용종의 숫자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첫 검사때 장정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재검사를 3-5년 안에 다시 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대장검사를 하게되면 대장암으로 사망을 할 확률이 훨씬 적기때문에 50세 이상의 성인은 정기 대장검사를 꼭 받도록 하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0세 이전(40세부터)에 대장검사를 하도록 한다.

▲문의:213-383-9388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

주제강의:

목회와 설교

목회와 영성

목회와 가정

목회와 소그룹

강사:



김영길 목사 (LA 감리회목회 원로목사)



임성진 목사 (WMU 총장)



남중성 교수 (아시아 아메리칸 영성센터 디렉터)



최운정 교수 (PCCE 디렉터)



신선목 교수 (소그룹 사역센터 디렉터)

일시: 2025년 3월 10일(월) 9:30AM-3:30PM

장소: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시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참가신청 QR